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방안

이창우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방안

\ 연구책임

이창우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이지연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의 개요	2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02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와 필요성	8
1_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	8
2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15
3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성	17
0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6
1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26
2_도시농업 분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현황	35
3_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 현황	38
4_현황 분석 종합	43
04 외국사례 분석	48
1_북미 도시 사례	48
2_유럽 도시 사례	64
3_아시아 도시 사례	84
4_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91

05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94
1_경작공간과 도시농부의 확대	94
2_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증진	100
3_제도적 지원의 다양화와 구체화	104
4_도시농업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108
참고문헌	115
부록	117



표

[표 2-1] 국내 도시농업 관련 조례 양적 증가 추이	9
[표 2-2] 국내 도시농업의 유형	11
[표 2-3] 서울시 경지면적 변화	14
[표 2-4] 서울시 2013년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	18
[표 2-5] 민영 도시농업 서울장터(농부의 시장) 현황	18
[표 2-6] 사회적경제기업화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도시농업 분야	21
[표 3-1]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의미	27
[표 3-2]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3년 기준)	29
[표 3-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5년 기준)	30
[표 3-4]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마을기업 현황(2013년 기준)	35
[표 3-5]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자활기업 현황(2013년 기준)	35
[표 3-6]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마을기업 현황(2015년 기준)	36
[표 3-7]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39
[표 3-8] 협동조합의 유형과 의미	40
[표 4-1] 리비전 도시농장의 사업 활동과 성장	51
[표 4-2] 리비전 도시농장의 사회적 활동과 영향	53
[표 4-3]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2013년, 2014년 이윤과 손실	67
[표 4-4]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2013년, 2014년 수입원 분석	68
[표 4-5]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78
[표 4-6]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과 지역사회의 연계	79

[표 4-7]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82
[표 4-8] 일반시장과 생활클럽생협의 비교	88
[표 5-1] 북미의 공동채텃밭 유형 분포 현황	97
[표 5-2]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도시농업 정책 비교	100
[표 5-3]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사업	112



그림

[그림 1-1] 연구의 체계	4
[그림 1-2] 연구의 방법	5
[그림 2-1] 영국 런던의 얼로트먼트(Arvon Road Allotments)	8
[그림 2-2]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현황	12
[그림 2-3] 서울시 공영·민영 주말농장 현황	12
[그림 2-4]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16
[그림 2-5] 마르쉐@양재 현장조사(2015.09.19)	19
[그림 2-6] 도시농업·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의 관계	23
[그림 3-1]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13년 기준)	26
[그림 3-2]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15년 기준)	28
[그림 3-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29
[그림 3-4] 에코그린팜의 마분 퇴비	31
[그림 3-5] 에코그린팜의 마분 톳밭	31
[그림 3-6]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밀착지원서비스 체계	41
[그림 4-1] 리비전 도시농장 모델	49
[그림 4-2] 2007년 총수입 분석	50
[그림 4-3] 2010년 총수입 분석	50
[그림 4-4] 리비전 도시농장의 수입원 분석	52
[그림 4-5] 농부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산물	54
[그림 4-6] 농부시장 가판대	54

[그림 4-7] 시카고 그로잉 홈의 여러 프로그램	56
[그림 4-8] 시카고 그로잉 파워의 입구와 유기농산물 매점	57
[그림 4-9] 시카고 그로잉 파워의 버섯 재배와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	58
[그림 4-10] 소울 푸드의 주차장 농장	59
[그림 4-11] 밴쿠버 소울 푸드의 전경	60
[그림 4-12] 밴쿠버 소울 푸드의 농장 위치	61
[그림 4-13] 밴쿠버 소울 푸드의 상자텃밭	63
[그림 4-14] 그로잉 커뮤니티즈 농부의 시장	65
[그림 4-15]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다양한 채소·과일 상자	66
[그림 4-16] 그로잉 커뮤니티즈 농부의 시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	66
[그림 4-17] 파리지 공동체텃밭 분포 현황	69
[그림 4-18] 파리지 최초의 옥상텃밭인 Jardin Sur Le Toit	70
[그림 4-19] 파리지 초록손협약	70
[그림 4-20] 파리의 La Recyclerie의 내부와 외부 전경	71
[그림 4-21] 베를린의 다양한 이행기 프로젝트	72
[그림 4-22]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의 2009년(좌)과 2012년(우) 모습	73
[그림 4-23] 프린체신가르텐의 다양한 사업	74
[그림 4-24] 우파 파블릭의 생태프로젝트	75
[그림 4-25] 템펠호프 공향공원의 공동체텃밭	77
[그림 4-26] 베를린·런던·파리 도시농업의 생활권 녹지 역할	80
[그림 4-27]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81
[그림 4-28]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의 다원적 가치	83
[그림 4-29] 싱가포르 Edible Garden City의 전경과 상자텃밭	84
[그림 4-30] 싱가포르 Comcrop의 아쿠아포닉스	86
[그림 4-31] 싱가포르 Comcrop의 농작물 재배 모습	87

[그림 4-32] 생활클럽생협 도쿄와 제휴하는 지역생산자 지도	88
[그림 4-33] 생활클럽생협 도쿄의 메커니즘	89
[그림 5-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103
[그림 5-2] 파리시 도시경작 지원본부	109
[그림 5-3] 도시농업 중간지원기구의 기능과 조직도(안)	111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1 |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1992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의 주말농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2009년에 농촌진흥청이 주도하여 한국도시농업연구회를 공식 발족하였고, 그 해 말 경기도 광명시가 최초의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도시농업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뒤이어 2011년 도시농업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농업의 제도화는 큰 흐름이 되었다.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을 도시농업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여 대외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 강동구는 2010년 가을에 이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0년 봄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농장을 강동구 둔촌동에 조성하기도 하였다.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시농업 운동과 함께 등장하였다. 우선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구 등 기존 농업에서 사용되던 것과 차별화되어야 했고,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도시에 맞는 농법과 교양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 방식을 도시농업에 접목시키게 되었다. 경작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농사지을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상자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이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자극하였다.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거름과 상자텃밭 등 농자재 제조와 도시농부학교, 학교텃밭 등 교육 서비스, 농장 조성 등 종합적인 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2) 기업 수 증가와 함께 실패사례도 속출

2013년 기준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79개였으나, 2년 후인 2015년(6월 기준)에는 150개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로컬푸드, 식자재 유통, 도시텃밭 조성, 도시양봉, 도시농부 학교 등의 사업영역에서 각종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시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본력 부족, 경영능력 미흡, 인적 자원 취약, 차별화 전략 부재 등의 원인으로 실패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2013년과 2015년 현황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2년 넘게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과반수가 채 안 되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은 지속가능한 운영과 수익 창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도시농업

이전에는 도시농업이 시민의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요소나 6차 산업의 새로운 아이টে็ม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2015~2024년 약 10년간 1,2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 1.0 마스터플랜(2012~2014)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1차 마스터플랜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2015~2018)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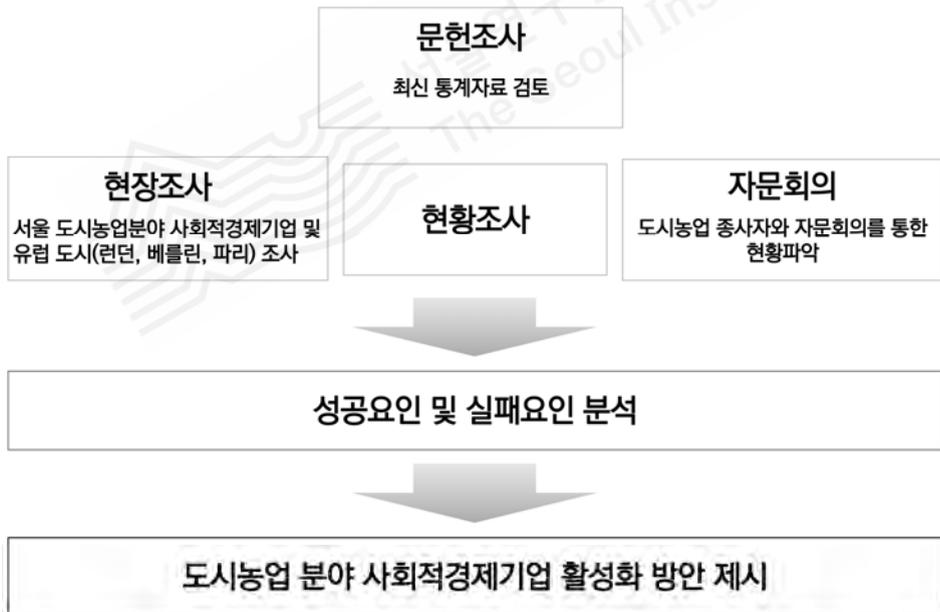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도시농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도시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도시농업 경작 면적 확대, 도시농부 수 증가,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실패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와의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분석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의 체계 및 차별성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나 사회적경제와 로컬푸드의 관계 분석 등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는 여럿 있다. 그러나 이 연구와 같이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과 실패 요인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르다. 이를 위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문하고, 시청 담당부서를 통하여 최신 데이터를 구했다. 또한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의 현장답사를 통해 유럽 도시농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서울시 사례에 적용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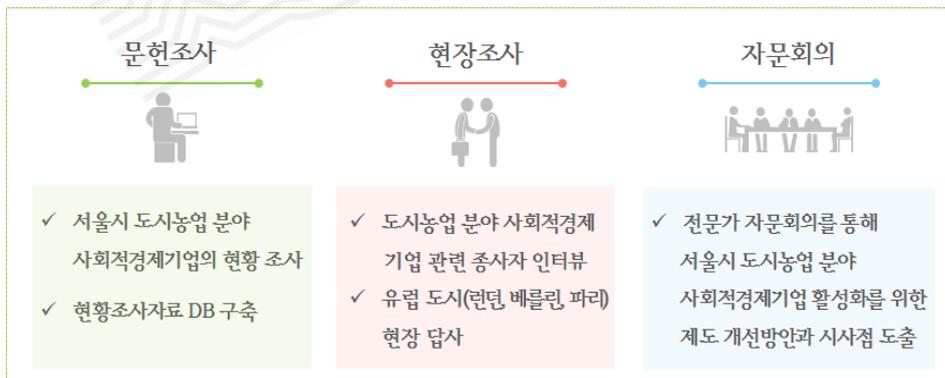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조사원과 정리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현황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자료는 서울시 도시농업과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종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3장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부분에 서술하였다. 서울시의 현황뿐 아니라 해외 도시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도시농업의 역사가 깊은 런던, 베를린, 파리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자문회의는 현재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의 원고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은 텃밭보급소 안철환 대표, 협동조합의 현황 및 개선방안은 에코11 백혜숙 대표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여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터뷰는 유희원 솔이텃밭 도시농업 강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림 1-2] 연구의 방법

02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와 필요성

- 1_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
- 2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 3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성

02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와 필요성

1_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

1) 도시농업의 의의

도시농업의 개념적 정의는 각 국가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농업의 원조 격인 독일은 오래전부터 도시농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을 조성해왔다.

영국은 1908년 분할 대여된 농지라는 의미인 「얼로트먼트(Allotment)」의 근거법령인 얼로트먼트법 제정 이후 도시 내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개인에 임대해주는 공동체텃밭과 도시농장 등이 활성화되었다. 영국은 빈민의 식량 지급 목적으로 도시농업이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생태계 보호 목적도 중요시되었다.



[그림 2-1] 영국 런던의 얼로트먼트(Arvon Road Allotments)

일본의 시민농원은 도시 내 농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비된 것을 이른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20세기 초 영국의 얼로트먼트가 교토에 소개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6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시농업으로 주목받는 쿠바는 미국의 해상봉쇄로 소련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1991년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랙터 대신 소, 비료 대신 퇴비를 활용하는 등 생태적인 형태의 도시농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쿠바는 도

시농업을 이용하여 식량난을 극복하면서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도시농업은 광의로 도시나 도시 근교에서 원예, 곡식, 가축, 어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도시민이 도시의 자투리땅, 뒤뜰,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크며, 도시농업의 범위도 가정에서 화분에 화초를 재배하는 것부터 먹을거리 생산까지 광범위하게 그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상이하며 파편적이었던 도시농업의 개념은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일단 정리되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친환경 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붐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조례 제정 건수가 2010년 9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4.6배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표 2-1】 참조).

【표 2-1】 국내 도시농업 관련 조례 양적 증가 추이

(단위 : 건, 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증가 추이 (2010년 대비)
계	9	21	41	4.6
특별시/광역시	1	4	6	6.0
기초	8	17	35	4.4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시 농업의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유희지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여가적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시 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먹을거리 마련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농사활동을 말한다.

법률적 정의 이외에도 이창우(1995)는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농업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유병규(2000)는 도시농업을 근교농업이 지닌 1차 산업적 생산 개념과 2, 3차 산업적 가공 및 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복합 산업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요시다 타로(2002)는 주위가 택지로 둘러싸여 뽕뽕이 흩어진 토지조각들을 이용한 농업으로, 학교와 공장의 인접지, 회사와 병원, 주택가 옥상과 발코니에 이르기까지, 시내 한복판이라도 빈 땅이면 어디서든 유기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했다. 김종덕(2002)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에서 영농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했다. 오대민·최영애(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보았다. 장동현(2006)은 도시와 농업의 관계 속에서 공공적이며 생태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농업을 도시농업이라고 했다. 농촌진흥청(2010)은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 또는 인근에서 농사짓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넓게는 농작물, 관상용 화초뿐 아니라 가축을 기르고 가공·유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김태곤·박문호·허주녕(2010)은 도시농업이란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도시근교 지역에서 행해지는 생업농업과 생활농업을 말하며, 환경보전이나 재해방지, 경관형성 등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활동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생업으로서의 농업인과 생활농업으

로서의 텃밭농원 이용자, 그리고 교류나 직거래 참가자 등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창우,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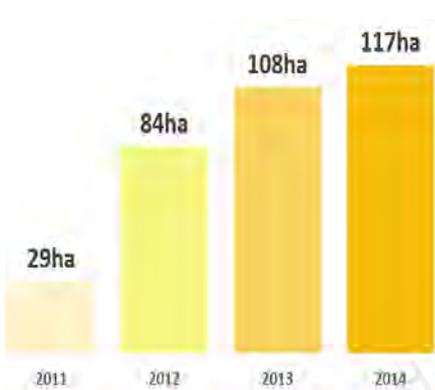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국내 도시농업의 유형

구분	내용	예시
주택활용형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외부, 난간, 옥상 등 활용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	주택내·외부 텃밭 주택 인근 텃밭
근린생활권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활용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도심형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외부, 옥상 활용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 활용	빌딩 내부 텃밭 빌딩 외부 텃밭
농장형· 공원형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 활용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도시농업공원텃밭
학교교육형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	유치원(유아원)텃밭 초/중/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습교육형 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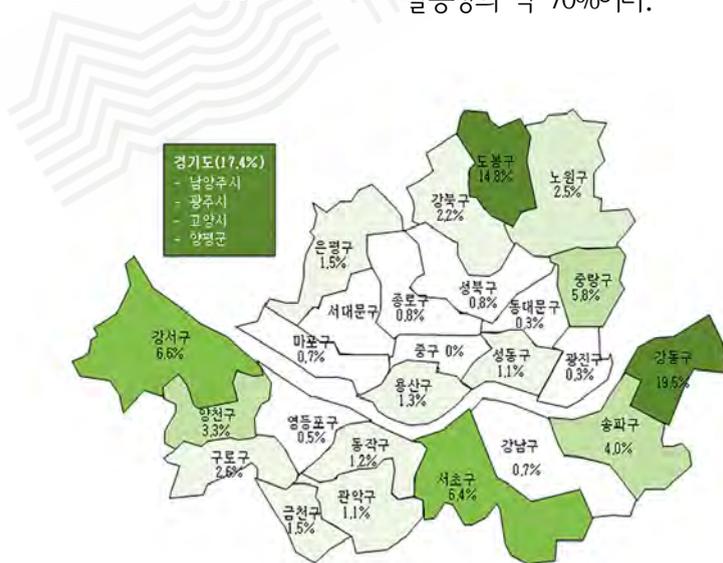
2)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서울의 도시농업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도시농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해보아도 서울의 도시농업 경작활동 공간 규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농장수로 볼 때 뉴욕이 600여 개, 런던이 700여 개, 도쿄가 500여 개 인데 비해 서울은 100여 개가 넘는 수준이다. 런던의 도시농업 역사가 100년이 넘고 도쿄가 80년이 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도시농업 성장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서울의 도시농업공간은 2011년 기준(29ha) 최근 3년간 약 4배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7ha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변두리를 활용한 주말농장이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65%이며, 이 중에서 강동·도봉·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등이 전체 주말농장의 약 70%이다.

[그림 2-2]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그림 2-3] 서울시 공영·민영 주말농장 현황

서울의 도시농업을 주도해 온 강동구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의 모든 면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강동구는 텃밭 규모 면에서나 구획 수, 도시농부 숫자에서도 단연 앞서고 있다. 서울 전체 텃밭 규모 중 20%가 넘고 구획 수는 3,800개, 도시농부 수는 2만여 명에 이른다. 강동구 도시농업은 내용 면에서도 선도적이다. 한국 도시농업 최초로 토종 종자 증식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로수 낙엽을 퇴비화하는 낙엽 퇴비장도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동구는 많은 도시농업 교육 기관도 자랑하고 있는데 현장농부학교, 토종학교, 자원순환학교, 양봉학교, 도시농업전문가과정 등이 그것이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하며 그에 발맞추어 도시농업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의지도 강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시농업 전담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강동구가 유일하며 도시농업 전문단체 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곳도 강동구가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우리 도시농업 역사 중 제일 오래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강동구가 지리적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모범사례이기는 해도 파급력이 약한 것도 현실이다. 서울의 도시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공무원과 시민단체이다. 텃밭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사상누각의 불안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서울 도시농업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농업 전문 단체가 제일 많으며 학교텃밭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서울의 시민단체이다.

도시농부의 장터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시민단체로 ‘늘장’과 ‘마르쉐@혜화동’ 등이 있다. 특히 마르쉐@혜화동은 2012년 10월 12일 대학로 아르코갤러리 앞 마당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4년 9월에는 양재시민의숲 부근, 그해 12월에는 명동성당 1898광장까지 확대되었다. 2014년 기준 회당 60여 팀, 150여 명의 출점자와 회당 2,000~3,000여 명이 함께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3) 서울시 도시농업의 한계

서울의 도시농업은 2012년 6월 2일 도시농업 원년이 선포된 이후 붐이 일었다. 그런데 이 유행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서울 도시농업의 현실이다. 우선 문제점으로 현재 서울에서는 농사짓고 싶어도 농사지를 땅이 별로 없다는 점이 있다. 주말농장과 자투리 텃밭은 서울 외곽에 상당히 많이 있다. 2014년 도시농업시민협의회에서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농장형 도시텃밭 중 반이 주말 농장이었다. 이는 도시농업 조례와 도시농업 육성법에 근거해 새로 조성한 농장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도시농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들의 노력과 시민의 의지가 모여져 이룬 쾌거였지만 아직 주말농장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경기도 안산시의 도시텃밭 면적에 비해 3배 많은 것에 불과하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이 75만 명인 안산에 비해 인구 수가 10배 이상 되는 도시임에도 텃밭 면적은 겨우 3배 정도 큰 것에 불과하다. 그 외 안산의 실태조사가 전수 조사 방식이 아닌 샘플 조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편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안산이 아닌 경기도의 도시들과 비교한다면 서울의 도시텃밭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욱 작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농장형 도시텃밭은 63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10%가 채 안 되며 서울에 남아 있는 800여 헥타르의 농지 중 10%도 못 미치는 규모에 불과하다. 한편 [표 2-3]에서 보듯 논과 밭을 포함한 서울시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서울시 경지면적 변화

(단위: ha)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경지면적	4,900	2,999	2,574	1,866	2,105	1,763	930	629
논	2,641	1,432	1,294	857	748	590	318	443
밭	2,259	1,567	1,280	1,009	1,357	1,173	612	186

그럼에도 서울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3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도시농업 전문단체는 그 중 반에 육박한다. 반면 경기도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단체는 20개도 채 되지 않으며 전문단체는 그 중 반에도 못 미친다. 땅은 부족한데 도시농업을 하는 단체는 그 이상으로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1)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서울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정신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2014년 5월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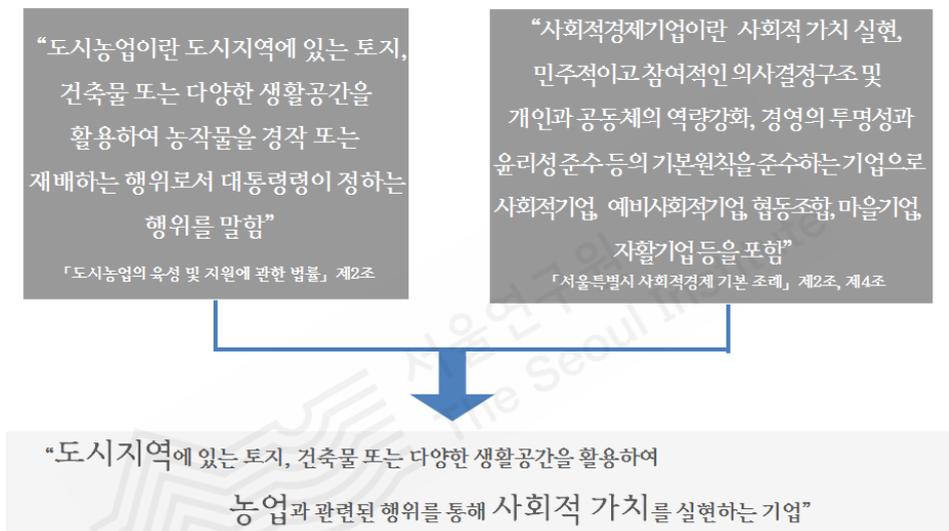
여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된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을 말한다.¹⁾

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르면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며,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행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단순히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양봉, 농작물의 생산·유통·판매, 농산품의 제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4]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의의

3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성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기능으로 식량안보, 농업소득창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비용 저감 기능이 있다. 둘째는 사회적 기능으로 교육, 문화, 보건휴양, 사회복지 기능이 있다. 셋째는 생태적 기능으로 도시화 완화, 방재,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촌교류를 증진하여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도시로서 제 기능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인간과 자연에 활력을 주는 선순환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지역에서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신선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교육함으로써 소비자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푸드마일(food mile)’과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인다. 그리고 농업관련 시설, 식당, 농부의 시장 등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농업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장기적인 성공은 재정조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농장과 그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확물 판매로 얻은 수입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농장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교육인력 양성을 통해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도시농업 분야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 도시농업 활성화로 552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²⁾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농부학교 교육,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학교농장 관리인(65명), 원예치료사(3명), 양봉 관리인(8명), 민간단체 도시농기업활동가(50명), 농부의 시장 운영자(406명),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사업(20명) 등이다(<https://economy.seoul.go.kr/archives/24388>)

[표 2-4] 서울시 2013년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

주요사업	과제	실적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2개(100명)	2개(100명)
도시농업 시민단체 공모사업 추진	10개 단체	10개 단체
민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육성	10개소 내외	전문인력양성기관 1개소 지정

출처: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2)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농업은 일자리 창출 및 농부의 시장 등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는 생산자(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의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부터 공공 분야까지 다양하다.

[표 2-5] 민영 도시농업 서울장터(농부의 시장) 현황

장터명	운영주체	개최주기	주요품목
마르쉐@계화동	(사)여성환경연대	월 1회	농산물, 수공예
보통직판장	쌈지농부	비정기	농산물, 먹거리
동진시장 7일장	모자란협동조합	주 1회	농산물, 공정무역
늘 장	자락당 등	주 3~5회	농산물, 재활용품
새마을 참farm	새마을운동중앙회	월 2회	농산물

주: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이미 농부의 시장(Farmer's Market)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1,755개였던 농부의 시장이 2013년에는 8,144개로 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본에서도 농산물직매소가 2011년 기준으로 22,980개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1997년 농부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750여 개에 달한다. 농부의 시장 확산은 특히 유럽

국가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시아·중남미에서도 오가닉마켓(Organic Market), 홀리데이 마켓(Holiday Market) 등 다양한 농민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주 새벽시장, 대구새벽시장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부의 시장이 시도된 이래 완주, 대구, 서울시 강동구 등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농부의 시장인 ‘마르쉐@’는 혜화, 양재 등지에서 각각 한 달에 한 번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전국 각지의 농부들이 모여 판매할 수 있지만, 입점자 선택 시 도시 농부를 더 우대한다.



[그림 2-5] 마르쉐@양재 현장조사(2015.09.19)

‘마르쉐@혜화동’은 2011년 후쿠시마의 경험으로 먹거리 위험사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마르쉐@혜화동’을 처음 기획한 이들은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했다. 현재 마르쉐@혜화동은 연간 약 4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며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3) 산업구조 다양화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발굴과 농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집중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다.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시에는 사업 분야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외에, 도시와 도시인근에서 다양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이나 도시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집약적인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행위로 확대하고, 생산(1차), 가공(2차), 유통(3차)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에너지·바이오 기술 등과 융합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모하는 외국 사례를 접목한다면 도시농업 분야의 높은 잠재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다.

도시농업의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지 않은 새싹채소, 어린잎채소, 싹채소 등과 소비지에 인접한 근교농업으로 화훼와 채소 재배 등이 있으며, 도농교류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공동체지원농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2차 산업에는 생산된 채소·허브·약초 등을 가공하는 즉석식품 제조, 천연비누 제조, 다양한 채소종자매트, 새싹 및 어린잎채소 재배기, 아이디어 농기구소품,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퇴비와 배양토 제조, 정보기술을 접목한 재배상자, 햇빛 발전기와 결합된 퇴비제조용 설비, 에너지순환 빗물통, 텃밭교육용 교구재 생산 등이 해당한다. 3차 산업에는 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된 퇴비와 병충해자재 공급, 치유 및 진로직업, 학교텃밭교육, 텃밭정원 디자인과 설계, 소셜다이닝 축제, 도시농부장터, 텃밭세어링 등이 속한다.

중앙정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6차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물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2013년 6월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2013년 10월과 11월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결국 2014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표 2-6] 사회적경제기업화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도시농업 분야

구분	분야	내용
교육	치유·진로직업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수요 급증 노작교육, 인성교육 연계
	건강·인문학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에 관심 증가 다산의 3농 정신 등 인문학과 접목
	텃밭교구재	텃밭을 조성하는 학교 수 증가 텃밭교구재 공급으로 텃밭강사의 준비시간 절약
생산	채소·허브·약초	생산전용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생산과 관리 녹색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양봉	관공서 옥상에 생산을 위한 꿀단지 조성 체험연계 관련 상품 판매
	새싹·베이비립	실내적합형 재배기로 새싹과 베이비립 생산 유희공간 활용, 노인일자리 적합
제조	상자·배양토	서울색을 적용한 서울텃밭상자 제조 자연에 가깝고 지력이 좋은 배양토 제조
	허브·약초 외	천연재료를 활용한 핸드메이드 식품과 제품 농부의 시장, 온라인 판매 연계
	퇴비통·빗물통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가정용퇴비기 수요 증가 자원절약과 순환도시농업 확산으로 빗물통 수요 증가
도농	CSA공동체지원	쌀공동체, 과일공동체, 슈퍼곡물공동체 등 농축산식품부 직거래 활성화 정책에 부응
	일손돕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귀농귀촌교육센터와 연계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증가, 정부지원정책 활용
	농부의 시장	마르쉐, 야시장, 명랑시장, 꼬부랑길장 등 프리마켓 증가 청장년 귀농인 증가
문화	텃밭디자인	지역과 대상에 따른 텃밭의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 바둑판식 텃밭에 실증, 디자인된 텃밭 수요 증가
	축제와 투어	지역별 도시농업축제 개최 증가 치유가 필요한 도시민에게 텃밭투어 수요 가능성 큼
	소셜다이닝	가공 및 즉석식품 섭취로 기초체력 저하 1인 가족들의 색다른 소셜다이닝 수요 증가

마을	퇴비발전소	개인가정 연계, 공동주택, 마을텃밭 퇴비발전소 설치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도시농업과 통합적 사업화
	텃밭놀이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텃밭과 식당	지역의 텃밭생산물을 식당과 연계하고 배달 대학생 시간제일자리 연계
기술	정보·IoT	텃밭위치와 재배정보를 촘촘하게 제공하는 텃밭케어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모바일활용 재배
	바이오	역한 냄새가 없는 도시농업용 퇴비 필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퇴비제조용 미생물 수요 증가
	에너지	햇빛발전기와 융합된 퇴비제조용 설비 햇빛발전기를 설치하는 옥상 증가

4)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공동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도시농업 실천공간인 도시텃밭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수행하며, 농사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공동작업 등을 활용해 단절되었던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준다. 도시농업의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김미향·조동범(2010)은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조성한 결과 이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웃들과 모종 및 경작물을 교환하고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는 등 노인세대들의 중요한 활동의 장이 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박태호·이인성(2012)도 연구에서 텃밭활동과 텃밭 환경의 평가는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 관리조직이 있으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텃밭은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지역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의 다르데스하임(Dardesheim)이라는 마을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콘(Enercon)이라는 풍력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지역공동체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출자금(20%) 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간 유대와 소통 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송창용·성양경, 2009). 국내 사례로는 충청남도 아산의 ‘한살림 아산시 생산자연합회’가 있다. 아산의 생산자연합회는 지역 주민이 뜻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은 지역 내 소외된 지역과 학교급식활동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간의 연대를 더욱 끈끈히 하고 있다.



[그림 2-6] 도시농업·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의 관계

즉 도시농업과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시농업의 실천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소비자가 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0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1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 2_도시농업 분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현황
- 3_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 현황
- 4_현황 분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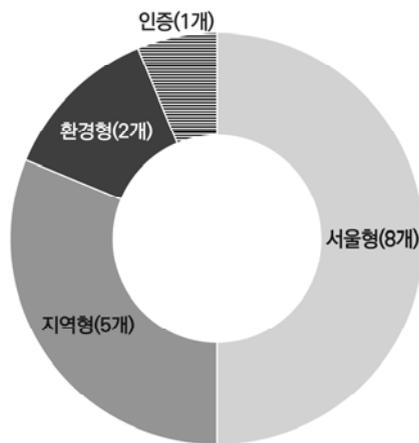
0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990년대 초반 시민 주도의 주말농장에서 2000년대 후반 행정기관의 참여를 거치면서 도시농부와 도시텃밭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농부 수는 2010년 15만 명에서 2014년 10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7.1배 증가하였고, 전국의 도시텃밭 면적도 2010년 104ha에서 2014년 664ha로 6.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교육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했고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기업도 늘어났다.

2013년 기준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은 16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4개, 협동조합이 44개였으나 약 2년 후인 2015년 7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21개, 마을기업 8개, 협동조합 121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_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1)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다수



[그림 3-1]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13년 기준)

2013년 기준 서울시의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6개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형 8개, 지역형 5개, 환경형 2개, 인증 1개로 나타났다.³⁾

[그림 3-1]에 나타난 유형은 인증요건 충족 및 주관부서에 따른 분류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형, 지역형, 환경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다. 또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환경형 사회적기업은 환경부가 지정하며, 서울형과 지역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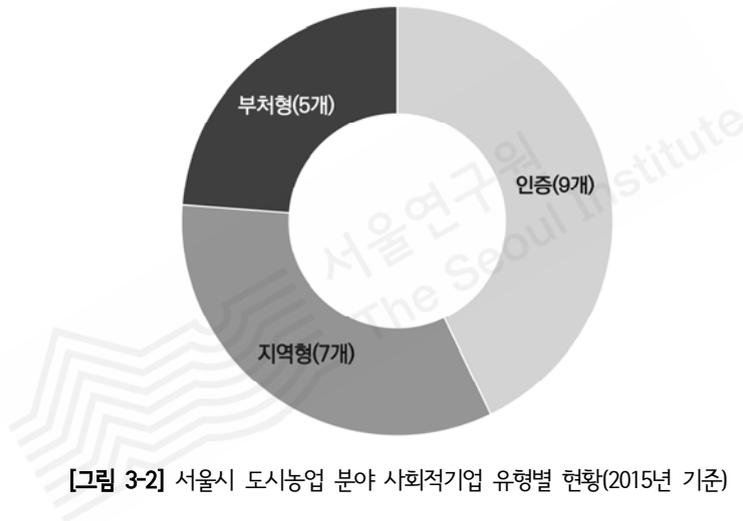
[표 3-1]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의미

유형	의미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한 종류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3) 위의 유형별 분석은 인증요건 충족 및 주관부서에 따른 분류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각 지자체(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2012년 이후 폐지되어 지역형 사회적기업만 지정하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3년간 자격 유지 후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2015년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21개로 2년 전에 견줘 5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2013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단 1개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5년에는 9개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인증이 9개, 지역형이 7개, 부처형이 5개로 파악되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현황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림 3-2]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15년 기준)

2) 강남과 강북에 고루 분포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이 강남(9개)과 강북(7개)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서초구(3개)에 가장 많이 있었으며, 마포구(2개), 강동구(2개) 다음으로 종로구·성동구·노원구·은평구·성북구에 1개씩 분포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강북(5개)보다 강남(16개)에 훨씬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총 4개로 파악되었다.



[그림 3-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표 3-2]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3년 기준)

구분	기업명	시군구	사업 내용
인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서초구	로컬푸드, 제철꾸러미 사업
	(주)이녹색	금천구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 식자재납품 등
서울형	(사)대한식문화연구원	종로구	요리조리 아동식생활교육
	(주)가든프로젝트	송파구	서울시 옥상공원화사업 + 도시농업 프로젝트
	농업회사법인 달비채	서초구	도시형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렌차이즈사업
	(주)그린플러스연합	성동구	친환경농업 및 도시로컬푸드
	주식회사 식물농장	노원구	조경용 야생화 생산, 판매 사업
	(주)착한사람들	영등포구	식자재 유통사업
	(주)에코맘	은평구	에코맘 환경 사업
지역형	농업회사법인 강동도시농부(주)	강동구	로컬푸드 농부의 시장
	(주)친환경 두채류사업단	강동구	친환경기능성 콩나물 생산, 유통
	(주)뽕큐플레이트	성북구	유치원생, 청소년 대상 요리커뮤니티를 제공
	(주)에코녹색팜	송파구	도시농업 쓰일체인지와 팜닥터
	농법회사법인 도시농부들(주)	마포구	도시농업 및 텃밭 보급
환경형	(주)에덴도시녹화	마포구	도시녹화, 버섯텃밭, 탈북청년일자리
	(주)에코11	서초구	자원순환형도시농자재, 기부텃밭

[표 3-3]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5년 기준)

구분	기업명	시군구	사업 내용
인증	(유)그린에버	마포구	화훼판매, 그린관리사 식물관리
	풀빛문화연대	종로구	숲학교 네트워크사업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라미	성동구	숲 체험프로그램 및 숲속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서초구	로컬푸드, 제철꾸러미 사업
	청밀	송파구	식자재사업, 농산물전처리센터, 유통사업, 쇼핑물사업
	(주)떡찌니	강남구	농수산물판매유통, 떡 제조 등
	(사)로컬푸드운동본부	서초구	농업분야관련 연구용역, 로컬푸드 캠페인, 세미나 등 개최
	주식회사 이그린	금천구	식자재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단체급식 음식업
	(주)가든프로젝트	송파구	조경건설업, 원예자재 도소매,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지역 형	강동도시농부 주식회사	강동구	로컬푸드 농부의 시장
	주식회사 에코그린팜	송파구	도시농업 쓰일체인지와 팜닥터
	농업회사법인 도시농부들(주)	영등포구	도시농업 및 텃밭 보급
	(주)우리원예교육엔치료센터	노원구	원예치료 및 원예교육
	(사)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 부내 사업단 '하늘땅물벗 나눔터'	영등포구	친환경농산물 도소매 제방생산및 판매
	(주)꽃과정원그리고길	강남구	화훼관련사업, 도시농업관련사업
	산지협동조합	관악구	텃밭교육, 도농 간 교류
부 처 형	이풀약초협동조합	양천구	임산물(약초) 재배, 판매
	(주)에덴도시녹화	종로구	도시농업
	(주)에코그린팜	송파구	마분퇴비 공급, 도시텃밭 활성화
	산지협동조합	관악구	도시농업
	(주)에코11	서초구	환경교육, 자원순환형 도시농자재

3) 농자재 판매가 주력 산업

도시농업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농자재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다. 상자텃밭을 제품화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퇴비를 제품으로 내놓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에코그린팜’과 ‘에코11’이 있다. 에코그린팜은 마사회와 협업하여 경마장의 고품질 마분을 재료로 한 마분퇴비를 출시했는데, 적지 않은 양이 도시농업 쪽으로 판매되고 있다. 보통 축산업에서 쓰는 사료는 항생제 등 화학약품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경마장 말에게 먹이는 사료는 양질의 사료여서 화학약품의 오염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축분을 충분히 숙성시켜 완숙퇴비로 만들고 있다. 전업 친환경농업인들에게도 반응이 좋지만 더욱더 친환경 농법을 써야 하는 도시농부에게도 반응이 좋다.



[그림 3-4] 에코그린팜의 마분 퇴비



[그림 3-5] 에코그린팜의 마분 텃밭

에코11이 개발해 출시한 커피퇴비는 거름 효과는 물론 폐기물로 버려질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했다는 점에서 환경효과도 대단하다. 또한 에코11은 미생물을 이용한 살균, 살충제와 생육영양제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제품으로는 퇴비통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텃밭보급소’가 있다. 텀블러식 퇴비통을 개발한 텃밭보급소는 서울을 중심으로 퇴비통을 활발히 보급하고 있다. 퇴비통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배출하고 있는 다량의 음식찌꺼기를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환경개선 효과가 탁월하다. 상자텃밭 및 텃밭 제품을 출시한 ‘그린플러

스 연합'은 옥상텃밭 및 정원도 조성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시농부들'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부들은 영등포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시민농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영등포 도시농업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4) 도시농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소개

(1) 에코11

에코11의 백혜숙 대표는 도시농업의 사회적기업화를 초기부터 추진했다. 도시농업은 시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도시농업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농업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이 더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사회적기업의 영역은 도시농업교육과 도시농업강사 양성·파견과 같은 교육 서비스 부분과 도시농업을 위한 제품 생산으로 나눌 수 있다. 에코11은 2011년부터 강사 양성 교육을 했고, 스쿨팜 교육과 스쿨팜을 위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 교육서비스는 도시농업에 기여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도시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자원 없이는 운영이 쉽지 않고, 이후 정기적인 일자리 발굴과 강사진 운영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꼭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에코11은 커피찌꺼기를 퇴비 제조용 미생물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도시에 넘쳐나는 음식물과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의 가치를 담은 제품이다. 또한 미생물 살충제, 천연살균제, 식물영양제 등의 제품도 유통하고 있다.

도시농업 시장이 아직 작고 홍보할 만한 장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매출은 미미한 편이다. 에코11은 여러 지자체에 마을 단위의 텃밭공동체를 만들고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실행하는 '퇴비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을 제안 중이다. 이 기획이 실현되면 도시농업 분야의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에코11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퇴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 도시농부들

‘도시농부들’은 재미있게 일하며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보자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기업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지상이나 옥상, 실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고 교육도 하며 그에 필요한 농자재도 공급하고 관과 협력해서 사업도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막상 일을 해보니 자재유통이나 교육도 했지만 의미 있는 매출은 텃밭 조성공사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문래텃밭은 약 2천 평 규모로 2013년에 구청의 신청사를 지을 자리에 텃밭을 만들어 2년간 운영하였다. 친환경으로 농사짓도록 교육하고 캠페인도 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욕심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운영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활동하면 할수록 수입은 마이너스가 되어 갔다. 하지만 문래텃밭이 생기며 이 지역의 도시농업단체들이 많아졌고, 노숙자 지원 단체와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등 많은 지역단체가 텃밭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성화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주민 사이에 도시농업이 대중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농부들은 조경 공사를 하고자 했던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2015년 들어서는 소소한 교육사업과 텃밭조성사업 몇 개를 진행하고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있다.

‘도시농부들’의 조중욱 대표는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과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텃밭은 쌍방향 향유의 공간이며 치유와 힐링, 공동체 형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가 크지만 투자는 너무나 박한 편이라고 한다. 실제로 문래텃밭에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우울증 환자 그룹과 알코올 중독자 그룹을 대상으로 농사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텃밭은 경쟁과 스트레스, 고립화, 개인화 등 도시화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차 복지예산이 도시농업에 더 배정되어야 한다고 조중욱 대표는 주장한다.

(3) 에코그린팜

2015년 기준, 파트타임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일하는 에코그린팜은 예비사회적기업 단

계이며 2016년에 있을 사회적기업 심사를 올해 앞당겨 받으려고 한다. 마분퇴비라는 독자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마인드로 도시농업을 진단하며 제품의 양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마사회가 설립한 1호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린팜은 마사회가 공동투자를 해서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다. 마사회로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마분퇴비를 공유하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에코그린팜은 자체 브랜드로 농가용과 도시농업용으로 마분퇴비를 공급하고, 인공상토인 마분토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마분퇴비는 농가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운송비 부담이 있어 1kg 소포장의 흙밥을 판매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용기와 내용물을 보강한 제품을 연구 중이고 마트를 개척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린팜은 ‘굿파머스’라는 이름으로 도시농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송파구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1,500평 솔이텃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고 농사교육을 하며, 송파도시농업축제도 진행한다. 키즈팜을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텃밭체험교육을 하며, 주민센터 옥상에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하고 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 되는 비용으로 구청의 위탁을 받아 주말농장 운영과 퇴비 보급, 교육, 주민 상담 및 지원까지 하고 있다.

에코그린팜의 박성효 대표는 도시농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요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도시농업 시장이 확대되려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열려야 한다.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가치가 중심이 되면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교육, 보급, 지원 사업을 하면서 수익구조가 겹쳐 있다. 도시농업이 특화된 상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선입견이 있다. 사회적기업도 제품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제품의 품질도 높여야 하고, 고품격 제품도 필요하다.

2_도시농업 분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현황

1)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2013년 기준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마을기업은 5개로 파악된다. 대부분 소규모이며 텃밭 조성사업과 도시농업 교육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표 3-4]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마을기업 현황(2013년 기준)

마을기업명	자치구	사업내용
엔젤영농조합법인	관악구	자활영농을 통한 노숙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
(주)좋은마을생태공동체	구로구	구로구 도시텃밭 조성사업
녹색드림 협동조합	동대문구	친환경생태사업 및 건강나눔사업 지렁이 분변토상자 보급, 발아곡물
꽃피는 호박골	서대문구	도시텃밭 생태공원 및 커뮤니티 공원시설 조성
도농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직거래 촉진사업

주: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2013년 기준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자활기업은 4개이며,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표 3-5]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자활기업 현황(2013년 기준)

공동체(사업단)명	자치구	사업내용
흙사랑영농	용산구	브로콜리 등
영농사업단	광진구	농산품
영농사업단	노원구	구절초 등
모닝플라워	구로구	화분, 꽃

주: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2015년 6월 기준, 마을기업은 다소 증가하여 총 20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녹색드림은 마을기업에서 출발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처럼 건강한 농부협동조합, 민들레워크협동조합 등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표 3-6]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마을기업 현황(2015년 기준)

영역	마을기업명	설립	사업내용
가든	민들레워크협동조합 (숲지기 강지기)	2013	실내 정원 만들기, 생태 체험 교육, 초록 커튼 만들기, 동네숲 가꾸기
급식	(주)에덴스푸드	2011	아동·청소년 급식 및 유기농 도시락 사업, 출장 뷔페, 건강한 음식문화 교육
	노나매기단체급식 협동조합	2013	급식, 케이터링, 도시락 제조 판매
농산물유통	엔젤영농조합법인	2011	자활영농을 통한 노숙인 자활·자립기반 조성,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주식회사 연남올레마을기업 (연남동주민자치위원회)	2011	농수산물 직거래매장 운영, 불우이웃 돕기 사업
	에이카페	2011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직거래, 카페
	도농원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직거래 촉진사업
도시농자재 및 교육	건강한농부협동조합	2014	도시농업, 공동텃밭, 유기농 로컬푸드, 도농 체험, 텃밭 조성, 농자재 판매,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주)좋은마을 생태공동체	2011	텃밭조성 및 관리운영, 관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일정 수량의 상자텃밭을 분양,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통한 친환경유기농농산물 생산, 청소년생태환경교육
	꽃피는 호박골(어울림터)	2011	도시텃밭 생태공원 및 커뮤니티 공원시설 조성
	녹색드림 협동조합	2012	친환경생태사업 및 건강나눔사업, 발아곡물유통, 지렁이분변토 보급

로컬푸드	방아골사람들	2014	마을텃밭을 이용한 재료로 건강한 밥상 제공, 마을밥집, 주민공동체 활성화
	성미산 밥상		친환경 먹거리를 지역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지역문화행사 참여
	협동조합우리나눔	2014	도시락, 반찬꾸러미
	착한밥상맛갈손	2012	친환경 반찬 즉석 판매, 반조리 식품 제조·유통
	녹색뜰엔(성대골 행주치마)	2013	농어촌지역과 연계 전통밑반찬 조리 및 판매, 잔여 음식물 무료 제공으로 나눔네트워크 형성, 김치 등 가정용밑반찬 제조·판매
	희망찬가게(주) (성동희망나눔 부설)		희망김치 만들기
	얼굴있는 밥상 피어라 풀꽃		저렴한 먹거리 제공, 도농교류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 유지, 협동조합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재생	서울YWCA 사업부 (민들레 협동조합)		친환경마을의 일자리 품앗이, EM발효액 생산·보급, EM활용법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인력 양성
농산물가공	사랑빵 뽕사랑	2011	친환경 먹거리, 웰빙 쌀 과자 제조·판매

주: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눈에 띄는 도시농업 분야 마을기업 사례로 “에이커피”가 있다. 에이커피는 서대문의 사랑나눔봉사센터에서 탄생하였다. 독거노인, 장애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반찬봉사를 지속하기 위한 수익원 개발과 회원 활동의 확대를 위해 커뮤니티 카페의 필요성을 느껴 마을기업으로 에이커피를 준비하게 되었다.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작거래를 기반으로 커피 및 차, 쿠키, 인근 노인정 어르신들이 재배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의 10%는 봉사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쿠키는 고등학교 특수반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것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3_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 현황

1) 사회적경제기업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체는 크게 소비자, 소사업자, 노동자, 지역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급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구입과 안심할 수 있는 보육기관이 필요해서이고, 소사업자는 거대 구매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급격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공동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이다. 또한 지역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부족에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환경 보전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 주체별 설립 이유와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생산·문화·교육·복지 등)을 통합해보면 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설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사업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설립 목적과 소유자의 자격에서 차이가 난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소유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소유자는 사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교육기관·복지기관 등의 비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비영리기업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며 이윤은 사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이윤은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 환경보존, 대안 에너지 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기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점으로는 최소 설립인원이 5인이고 1인 1표제이며,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표 3-7]과 같다.

[표 3-7]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부처 인가
기업적 특징	• 경제 조직 • 시장경제와 자조를 기초로 조직	• 경제 조직이지만 일부 자선 단체적 특징 보유 •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면서 비시장 경제(자원봉사, 기부 등) 특징 보유 • 자조와 사회적 지원을 기초로 조직
목적	• 조합원 혜택 제공 우선 • 협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에 대한 편익과 잉여의 배분을 위한 활동	• 조합원 혜택 제공 우선 공익성 추구 • 잉여의 배분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익 배분	• 잉여가 발생할 경우에 조합원 출자에 대해서는 확정이자 이외에는 분배하지 않음 • 잉여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이 용고에 따라 배분	• 잉여의 배분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한된 잉여를 배분하는 사회적협 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동일
조직운영 및 지배구조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됨 • 조합원의 운영 참여는 투자액에 비례하지 않고 1인 1표에 기초 • 조직의 결속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	• 혜택을 받는 사람, 서비스를 공급 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됨 • 조합원의 운영 참여는 투자액에 비례하지 않고 1인 1표에 기초 • 조직의 결속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예외)	•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자기자본의 3 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 이상(자기자본의 3 배에 이를 때까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 없음(상법 등 준용)	• 필요시 관계부처 업무 감독 •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같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업조직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형태이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조직의 형태는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국내 협동조합은 법 시행 1년 만에 사회적경제의 핵심 모델로 자리잡았다. 협동조합은 20·30대 세대에게는 경제활동의 새로운 시도로, 50·60대 세대에게는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의 유망 분야로 각인되고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44개로 전체 사회적기업 69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 일반 협동조합은 43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⁴⁾

【표 3-8】 협동조합의 유형과 의미

유형	의미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4)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설립인원 5인, 1인 1표의 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은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라는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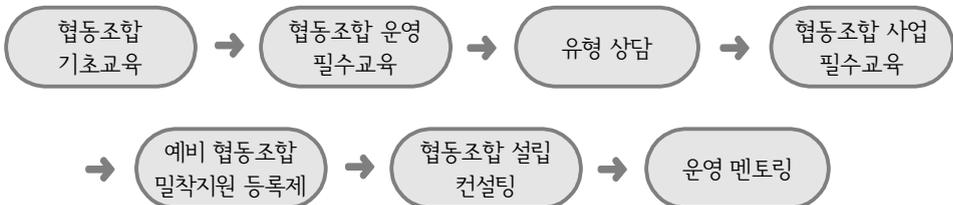
조합원 수는 5명의 소규모 협동조합부터 192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2,090개로, 이 중 도시농업분야 협동조합은 특용작물 협동조합 23개를 포함하여 약 123개에 이른다. 2012~2013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84개이고, 2014~2015년 6월까지 39개가 설립되었다. 도시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숫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도시농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빠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도시농업 일반, 농자재, 로컬푸드, 수경재배, 약초, 양계, 요리와 식생활교육, 원예, 양봉, 농산물유통, 재생, 급식, 치유, 토종, 체험농장, 도농연계 등 다양하다. 사업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는 도시농업 일반과 농산물유통이다. 농산물유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도시텃밭 생산물이 늘어날 경우 판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드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턱없는 세상’과 ‘도시농담’의 2개로 그 규모가 작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사회적기업인 ‘언니네 텃밭’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협동조합으로 만들기로 결의했고, 2015년 하반기에 ‘언니네 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으로 출범하였으나 비영리단체로 전환한 경우는 ‘파릇한 젊은이’가 있다.

3) 협동조합 지원조직 현황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는 다음 그림과 같은 체계로 밀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6]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밀착지원서비스 체계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도시농업의 한 분야인 도농교류사업과 도시농민경제하우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농업회사법인 하농가,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SH공사 성동권역주거복지센터가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는 귀농 전 농촌을 장기 체험할 기회를 주고, 도시 경제 취약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농촌은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도농상생 일자리 이음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을 70명 모집하여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관악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은 관악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실시했던 창업아카데미 과정에서 육성된 산지협동조합은 ‘영크레비즈’ 청년들이 모인 사업자협동조합으로, 2013년 (사)흙살림, 도농커뮤니티센터 ‘아람달동림권역 체험관’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농부와 시골농부가 함께하는 농촌체험여행, 도농교류와 연계된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귀농자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해주는 허브기능으로 사업을 안착시키고, 산지협동조합의 특징이 반영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살림’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한살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이전부터 일본 생협과의 교류를 통해 워커즈(노동자모임) 활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주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비전을 형성하였다. 개별 워커즈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협동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한살림 활동가들의 공부모임을 통해 워커즈 운영방식을 학습했다. 2002년 ‘함께 일하는 풀매’라는 명칭으로 첫 일공동체(3인 구성, 음식제조업)를 꾸렸으나 2005년 중단되었다. 이후 반찬 가공 혹은 자주관리매장 준비 모임 등 워커즈 활동에 대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2005년에는 두 개의 바느질 워커즈 ‘목화송이’와 ‘고운매’가 탄생되었고, ‘목화송이’는 2010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1년, 2012년 도봉구 마을기업 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에는 서울시 공간대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워커즈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한살림연합 생산자로 발전하였다. ‘고운매’는 사업 운영 부담으로 2010년 해체되었다.

한살림처럼 기업 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은 몬드라곤과 같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기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외식창업센터를 세우고, 기업 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그룹이 생기면 보증금을 대주고 법인 설립 시 출자를 하며, 인건비를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식창업센터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직원 11명이 파견된 독립 법인으로, 인큐베이팅 비용을 지원하며, 외식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그 밖에 청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의 기업들이 있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치공유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15년 6월에 ‘청년이여, 협동조합하자’라는 부제로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1년부터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 ‘H-온드림 오디션’ 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1년간의 창업교육 과정을 받게 될 인큐베이팅 그룹 15개 팀과 2011~201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 중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디벨로핑 그룹 15개 팀 등 총 30개 팀을 선발해서 인큐베이팅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4_현황 분석 종합

1) 꾸준한 성장세, 불투명한 미래

현 도시농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진단한다면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예비 단계를 끝내고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아야 할 기업이었던 텃밭보급소와 그린플러스연합이 인증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회적기업을 인증받는 것은 꽤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동안 텃밭보급소와 그린플러스연합은 도시농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며 활동성과도 적지 않아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에 실패한 텃밭보급소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 농산물 직거래 매장 개업 실패로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주)텃밭보급소는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지 못해 폐업하고 말았고 모 단체인 (사)텃밭보급소가 그 사업을 이어가면서 다시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하철 매장 실패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돌파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인증에 실패한 (주)그린플러스 연합은 도시농업과 사회적기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도시농업 자체로는 기업적 전망이 불투명하고 사회적기업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도시농업의 붐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농업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과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도시농업 정책 및 예산 수립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조례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77개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직접적인 기반이 될지는 의문이다. 도시농업에 필요한 자재는 여전히 일반 농업 회사 제품과 조경 회사 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도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자체도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런 제품들은 도시농업 수요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시농업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며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정확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창출해가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순환에서 미래를 찾다

자원순환의 문제를 도시농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텃밭보급소와 에코11의 노력은 고무적이다. 우선 2차 산업의 제조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돋보이며 자원순환이라는 사회적 필요에도 부합하고 있다. 마분을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그린팜의 노력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시농업에 맞게 소포장한 제품도 출시했고 다양한 제품화를 연구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기대된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에코11의 커피퇴비이다. 서울에서 하루에 쏟아지고 있는 커피찌꺼기

가 약 50톤에 이른다. 이를 버리지 않고 재자원화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3) 옥상텃밭과 농장 조성의 비용효과성

도시농업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의 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옥상텃밭과 농장 조성 및 운영사업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옥상텃밭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텃밭이나 시민농장 조성이 그다음 순서를 따른다. 옥상텃밭 조성은 사회적기업에게 꽤 좋은 수익활동이 된다. 그렇지만 옥상텃밭 조성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방수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 울타리 공사비용이 다음으로 많이 든다. 그 외에는 비싼 조경 자재들이 전체 비용을 높인다. 그렇지만 상자텃밭을 이용하거나 재활용 자재를 이용하면 의외로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 상자텃밭을 이용하면 방수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티로폼 등 재활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옥상텃밭 사례를 모아 어떻게 하면 옥상에서도 저비용 조성이 가능한지 답을 찾아야 옥상텃밭이 도시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04

외국사례 분석

- 1_북미 도시 사례
- 2_유럽 도시 사례
- 3_아시아 도시 사례
- 4_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04 | 외국사례 분석

1_북미 도시 사례

1) 마을공동체·복지·건강을 핵심가치로 하는 미국 도시농업

(1) 보스턴의 리비전 도시농장(ReVision Urban Farm)

리비전 하우스(ReVision House)는 임신한 노숙인 여성, 미혼모,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서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Dorchester)에 인접한 프랭클린 필드(Franklin Field)에서 설립되었다. 1993년 1에이커(약 4,000㎡)의 토지가 리비전 도시농장(ReVision Urban Farm)의 농지로 변환된 이후 3개의 그린하우스가 세워졌고 농지에는 채소, 허브, 과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5년 리비전 하우스와 리비전 도시농장은 빅토리 프로그램(Victory Program)으로 병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이 가진 노숙자 문제, 만성적 질병, 마약문제에 대처하는 긴 역사를 가진 비영리기관이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설립 당시부터 생산적인 노동을 지원하는 센터, 지역공동체의 참여, 건강한 먹거리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스턴의 노숙자문제, 굶주림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채소, 허브, 과일을 생산하였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리비전 하우스 쉼터(Revision House Shelter)에서 지내는 노숙인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무료로 건강한 먹거리도 주었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힘든 지역주민들에게 영양가 있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도시와 근교의 어른과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과일, 채소, 허브, 가축, 야생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건강한 식습관과 웰빙 습관을 가지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농장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판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판매액은 전체 운영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리비전 하우스, 프랭클린 필드, 보스턴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량, 직업

훈련,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노동력을 주거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구매하였다. 이러한 순환 고리는 씬터, 거주자, 지역사회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4-1] 리비전 도시농장 모델

리비전 도시농장은 리비전 하우스와 협력하여 씬터의 여성 거주자에게 6개월에서 12개월 코스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과정은 씬터 여성들에게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들은 그들과 부양가족을 위한 급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식량도 얻을 수 있다. 리비전 하우스와 리비전 도시농장이 문을 연 이래로 760가구 이상이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2007년 농장은 2,268kg 이상의 신선한 채소와 베리, 허브, 꽃 등을 수확하였다. 약 2,268kg의 총 수확물 중 527kg은 리비전 하우스 거주자들이 소비하였으며, 93kg은 지역사회 센터에 기부되었다. 추가적으로 822kg의 신선한 수확물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농부시장과 2곳의 식당에서 지역 주민에게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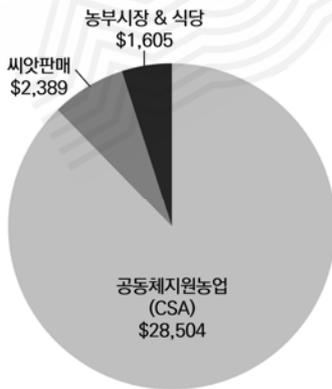
그 외의 수확물은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프로그램

을 통하여 지역사회보다 넓은 범위인 보스턴시에서 판매되었다.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이란 지역 거주민은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 농부들의 생산 비용을 부담해주고, 그 대가로 수확한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에 리비전 도시농장은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6,800kg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농장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하면서 보스턴 지역 거주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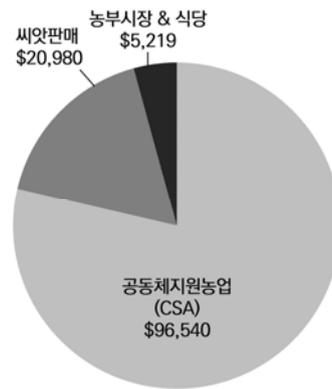
리비전 도시농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1. 리비전 도시농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부시장과 지역 식당을 통해 생산물을 판매한다.
2. 지역 주민들과 보스턴 시의 정원사들에게 씨앗을 판매한다.
3. 보스턴시의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을 위한 장기 생산물 판매시스템을 운영한다.

2007년 리비전 도시농장은 농부시장, 식당,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산물을 판매한 결과 32,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림 4-2] 2007년 총수입 분석



[그림 4-3] 2010년 총수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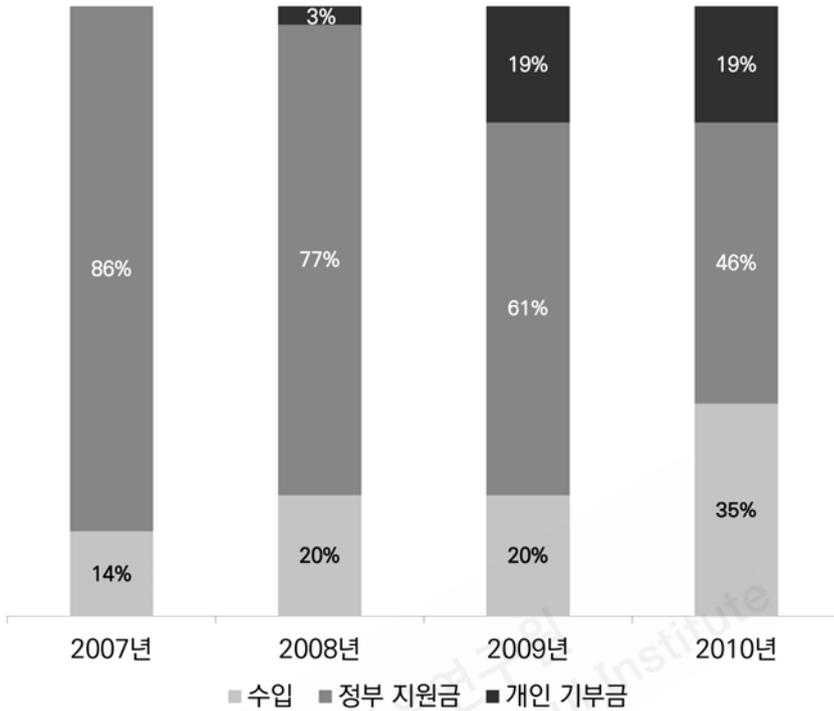
[표 4-1] 리비전 도시농장의 사업 활동과 성장

생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생산물(pound)	5,318	6,900	8,000	16,000
농부시장&식당				
판매량(pound)	1,813	2,596	3,245	10,490
수입(\$)	1,605	3,216	4,020	20,980
씨앗				
수입(\$)	2,389	3,340	4,175	5,219
공동체지원농업(CSA)				
CSA 참여자에게 제공된 생산물량(pound)	60	75	91	182
판매량(pound)	14,752	18,440	23,050	46,100
수입(\$)	28,504	39,909	48,270	96,540
합계				
총판매량(pound)	16,565	21,036	26,295	56,590
총수입(\$)	32,498	46,465	56,465	122,739

주: ReVision Urban Farm(<http://www.vpi.org/revision/>) 1pound ≙ 0.454kg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리비전 도시농장은 보스턴시 중심부에 있는 보스턴 시 병원 부지였던 곳의 42에이커(169,968m²)의 토지를 새로운 농장으로 조성하였다. 이 계획은 Lena Park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과 New Boston Fund의 Urban Strategy America Fund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농장 조성으로 생산물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3배 이상이 되었으며,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도 2007년 60명에서 2010년 18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하였다. 리비전 도시농장의 빠른 성장은 새로운 농장의 조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혁신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이 없었다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수입원의 다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운영 자금에서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금의 비율을 낮추고 대신 개인 기부자들에게서 받는 기부금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새로운 농장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350,000달러의 금액을 조성하였는데, 이 중 300,000달러가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모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4-4] 리비전 도시농장의 수입원 분석

사회적기업답게 리비전 도시농장은 기업의 경영과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기여를 하는 3가지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쉼터 거주자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2. 쉼터 거주자와 지역사회 단체에 생산물 기부
3.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

[표 4-2] 리비전 도시농장의 사회적 활동과 영향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쉼터 거주자 수 (명)	6	8	10	12
생산물 기부				
기부된 생산물량(pound)	1,366	1,575	1,969	3,939
기부된 생산물량의 가치(\$)	2,800	3,229	4,037	8,074
무료 생산물을 제공받은 쉼터 거주자 수 (명)	22-40	22-40	22-40	22-40
신선한 유기농 생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Franklin Field 인근 거주자 수 (명, 추정치)	2,000	2,000	2,000	2,000
시민참여				
농장에서 일하고 배운 자원봉사자 수 (명)	405	500	500	1000

주: ReVision Urban Farm(<http://www.vpi.org/revision/>)

1pound ≙ 0.453kg

①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 리비전 도시농장은 쉼터 거주자들의 리더십, 경영능력, 책임감 등 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쉼터 거주 여성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쉼터에 머물면서 직업을 얻기 위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리비전 하우스와 리비전 도시농장은 이전에 실시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음식 소매업, 요리법, 주방 기술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② 생산물 기부 : 프랭클린 필드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작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리비전 하우스 쉼터 거주자와 저소득 거주자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비전 도시농장은 연간 총생산량의 약 25%를 기부했다. 농장이 확장됨에 따라 기부량도 늘어나 2007년 620kg에서 2010년에는 1,787kg을 기부하였으며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2007년 2,800달러에서 2010년 8,074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③ 시민참여 : 리비전 도시농장은 지역주민과 보스턴시의 학생, 성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배우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몇몇 리비전 도시농장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그린하우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원봉

사자들은 자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배웠으며, 지역사회에 건강한 식습관과 웰빙을 정착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리비전 도시농장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 여성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교육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노숙인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과일, 채소, 허브의 생산을 다양화해 먹거리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농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2012년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2,600시간을 농장에서 보냈으며, 450여 명의 청소년이 먹거리와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900kg의 생산물이 기부되었다.



[그림 4-5] 농부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산물



[그림 4-6] 농부시장 가판대

(2) 시카고의 그로잉 홈(Growing Home)

그로잉 홈은 1993년 시즈 오브 체인지(Seeds of Change)에서 출발했다. 1993년에 시카고 노숙자 연합(Chicago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정책국장인 레스 브라운(Les Brown)이 연방정부의 유휴지에 도시농업과 일자리훈련을 적용하면서, 시즈 오브 체인지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1996년 시즈 오브 체인지는 비영리단체이자 그로잉 홈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8년에 그로잉 홈은 일리노이 라살리 지역에 10에이커(약 40,468㎡) 규모의 농장(현재 레스 브라운 기념농장으로 불림)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 농장은 노숙자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맥키니 벤토 법에 따라 처음으로 획득된 토지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그로잉 홈은 초기부터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해왔다. 그로잉 홈은 현재 시카고 시내 3곳과 일리노이 주 마르세이유 시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원래는 공한지였던 우드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현재 2/3에이커(약 2,698m²)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강의실, 사무실, 채소 가공처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인근에 있는 Honore Street 농장은 면적이 1에이커 정도 된다. 2만 2,000제곱피트(약 2,043m²)의 외부공간이 있는 이 도시농장에는 비닐하우스가 2개 있다.

그로잉 홈은 직업훈련, 도시 유기농업, 마을공동체 발전이라는 3가지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 유기농업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인 그로잉 홈은 직장이 없는 젊은이를 고용해서 농장을 관리하게 하고 채소를 기르게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정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로잉 홈은 공동체지원농업, 농부시장, 도매시장, 레스토랑 등을 이용해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잉 홈은 새 공동체 프로그램(New Communities Program)의 하나로 더욱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03년에 마을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팀워크 앵글우드(Teamwork Englewood)가 벌이던 활동의 일환이었다. 앵글우드 지역은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으로서 이곳에 그로잉 홈이 자리 잡은 것은 신선한 채소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던 지역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로잉 홈의 도시농장은 인턴이 관리한다. 인턴은 인근 앵글우드 마을 출신도 있지만 주로 시카고 전역에서 각종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이곳에 온다. 그로잉 홈에서는 연간 40명의 인턴이 14주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다. 모든 인턴은 현장에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한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로잉 홈의 인턴은 농부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로잉 홈에서의 농작업을 통해 인턴들은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로

잉 홈의 직원 중에는 고용 관련 상근 전문가가 있어 전문적으로 고용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인턴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컴퓨터 사용방법, 기타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인턴들은 농사일을 배우면서 단순히 농업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엄수하는 생활습관,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업무방법 등도 함께 체득하게 된다.

① 전환형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그로잉 홈의 일자리훈련 프로그램은 농업 및 원예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자리 준비 교육, 구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전환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은 농장에서 생산 활동에 일정 시간 참여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환형 일자리 프로그램은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② 전환형 일자리(Transitional Employment)

시정부 일자리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전환형 일자리는 보조농부의 형태로서 교육 훈련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실내교육, 실외교육, 농장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왼쪽위부터: 비닐하우스 고급 신선채소 생산, 실외농장, 훈련공간, 파머스마켓 물품납품일정표

[그림 4-7] 시카고 그로잉 홈의 여러 프로그램

그로잉 홈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시카고의 그린시티 마켓(Green City Market), 우드스트리트 농장 매점(Wood Street Farm Stand), 레스 브라운 기념농장 매점(Les Brown Memorial Farm Stand)에서 팔기도 하고 식당이나 공동체지원농업 회원에게 팔기도 한다. 그로잉 홈은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이트 확장 및 인턴 증원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앵글우드 농장은 2012년 13,000파운드(약 5,900kg)의 농산물을 생산했다. 2012년 그로잉 홈은 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로잉 홈은 앵글우드 주민에게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3) 시카고의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

그로잉 파워(Growing Power)는 유명한 농구선수 윌 알렌(Will Allen)이 1993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먹거리 재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에 좋고 안전하며 값싼 먹거리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자 토지 트러스트이다. 그로잉 파워의 본사는 밀워키에 있으며, 시카고는 그로잉 파워가 두 번째로 설립된 도시이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에서 총 6개의 농장과 공동체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잉 파워의 시카고 사무소는 공동체 먹거리 센터와 시카고의 도시농업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해 2002년 2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4년 기준 시카고에서 총 12에이커(약 48,562m²)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림 4-8] 시카고 그로잉 파워의 입구와 유기농산물 매점

그로잉 파워는 현장중심 교육훈련, 시범사업,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에 기초한 농업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한다. 공동체 먹거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로잉 파워의 아이언 스트리트 농장은 6개의 농장 중 가장 큰 농장이며,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도시 농장으로 만든 곳이다. 이곳에서는 토마토, 가지, 오クラ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가 7개 온실과 올림 베드에서 자라고 있다. 그로잉 파워 시카고는 2013년에 300명 이상의 젊은이를 고용하고 훈련했다. 이 중 시카고의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인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 45명 이상의 젊은이가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식당과 농부시장에 내다 판다. 그로잉 파워는 시카고 시와 협력하여 먹거리 보장이 안 되는 지역사회 5곳에 새로 농부시장을 열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중으로 농부시장 형태의 매점을 열어 찾아오는 주민에게 농산물을 판매한다. 아이언 스트리트 도시농장은 자원봉사자에게 1주일 3번 공식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우드칩이나 퇴비를 옮기거나 지렁이를 관리하거나 다른 작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돕는다. 이 농장에는 지렁이 퇴비통이 여러 개 있고, 옥상 양봉장에는 벌통 6개가 있다. 온실, 양어수경 시스템, 퇴비장, 지렁이 퇴비화 시설, 버섯재배 시설 등이 있고 염소도 기르고 있다.



[그림 4-9] 시카고 그로잉 파워의 버섯 재배와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

도시농업에서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토지 확보이다. 도시에서 농사에 적합한 땅은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이 적당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도 이

와 같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한다. 그로잉 파워는 농지 확보와 이익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했다. 아이언 스트리트 농장은 약 2에이커(약 8,094m²)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약 10,00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

2) 캐나다 밴쿠버의 소울 푸드(Sole Food)

소울 푸드(Sole Food)⁵⁾는 2010년 밴쿠버 도심부의 악명 높은 우범지대에 있는 허름한 호텔 옆 방치된 주차장에서 1,580m² 면적의 농장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림 4-10] 소울 푸드의 주차장 농장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풀뿌리 도심 공동체 비영리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캔(United We Can)’의 지속가능성 부서 책임자인 도리는 도시농장을 시작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을 때 새로운 친환경 벤처기업을 찾고 있었다. ‘유나이티드 위 캔’ 산하 이해 관계자 그룹들은 녹색사업으로 도심부에 고용을 창출해 줄 기업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하려고 모이고 있었다. 놀고 있는 땅이나 재개발 산업단지를 녹지 공간으로 전

⁵⁾ SOLE은 Save Our Living Environment의 약자이다.

환하는 기업에게 시가 제공하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해 동안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는 일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침내 밴쿠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허름한 아스토리아 호텔이 주차장을 내놓았다. 이 부지는 소울 푸드가 아스토리아 호텔과 2년간 리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최대 5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2011년 소울 푸드는 이곳에 가로 4피트(1.2m), 세로 12피트(3.7m)의 상자 텃밭을 155개 조성하였다.

소울 푸드는 이동식 텃밭 시스템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동식 텃밭 시스템은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경작 가능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집약적인 이동식 텃밭 시스템은 전통적인 경작 방식보다 농작물을 약 15~25배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울 푸드의 시장 출하용 고급 채소는 이 농장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할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도리는 솔직히 동의하면서도 곧바로 소울 푸드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웃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림 4-11] 밴쿠버 소울 푸드의 전경

소울 푸드 농장의 설립 목적은 연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해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이 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어야 했고 현금 유동성이 필요했다. 따라서 수확물의 90% 정도를 직접 고급 식당이나 상류층 주거지역 농부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 나머지 10%는 식량보장 문제를 담당하는 인근 공동체 조직으로 보낸다.

‘유나이티드 위 캔’의 사회적기업 모델에 충실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농장이 가져다주는 것과 같이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는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보장을 가져다준다.

2010년 생육기의 마지막 무렵에 소울 푸드 농장은 시장 가격이 비싼 농산물 4,500kg을 재배했다. 정규 직원 2명과 임시 직원 5명의 임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생산량이었다. 소울 푸드의 농장은 현재 4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농장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소울 푸드는 농장마다 기후 및 재배법과 같은 특색을 차별화하여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트라스코나(Strathcona) 농장의 당근과 폴스 크릭(False Creek) 농장의 당근이 당도와 크기, 영양소 면에서 차별화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2] 밴쿠버 소울 푸드의 농장 위치

3) 북미 도시 사례의 시사점

(1)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식량체계 접근방법

앞에서 살펴본 미국 도시의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먹거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선 미국 보스턴의 리비전 도시농장은 설립 당시부터 추구해야 할 가치 중의 하나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굶주림 문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교육과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돕는 한편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 총생산량의 약 25%를 기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의 그로잉 홈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그로잉 파워도 시카고시와 협력하여 먹거리 보장이 취약한 지역사회 5곳에 농부시장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소울 푸드는 먹거리 접근 방식이 미국 사례와 약간 다르다. 미국 사회적기업의 방향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소울 푸드는 수확물의 90%를 고급식당과 상류층 주거지역 농부시장에서 판매하고, 10%는 인근 공동체 조직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기업의 운영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은 농장에서 지역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상류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운영 전략으로 창출한 수익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2) 베드 재배의 활성화

도시농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보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옥상텃밭, 상자텃밭 조성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북미 도시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 그로잉 파워의 아이언 스트리트 농장은 토마토,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를 올림 베드에서 수확하며, 캐나다 밴쿠버의 소울 푸드는 3,000개의 상자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노지 재배가 아닌 베드 재배 방식을 이용할 때는 부지가 오염된 토양일 경우이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잉 파워는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올림 베드 방식을 채택하였다. 소울 푸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로 소울 푸드의 농장이 조성된 곳은 방치된 호텔 주차장 부지로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둘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아스토리아 호텔과 임대 계약을 맺은 곳으로 혹시라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간의 이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4-13] 밴쿠버 소울 푸드의 상자텃밭

셋째로 소울 푸드는 상자텃밭을 활용한 공간집약적인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노지 재배 경작방식보다 농작물을 15~20배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공간 집약적 토지이용은 시카고 그로잉 파워에서도 발견된다. 북미 도시가 주는 ‘베드 재배 활성화’라는 시사점은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에 시사점을 준다.

2_유럽 도시 사례

1) 공동체의식을 중시하며 치유농업이 특징인 런던의 도시농업

영국 도시농업의 형태는 크게 도시농장(City Farm), 공동체 텃밭(Community Garden), 얼로트먼트(Allotment)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도시농장이 치유농업과 생태교육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센터 역할을 하며 동물·식물·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라면, 공동체텃밭은 도시농장에서 동물 요소가 빠진 형태이고, 얼로트먼트는 자자체가 주민에게 분양해주는 경작지로 공동체의식이 약한 편이다.

(1) 그로잉 커뮤니티즈(Growing Communities)

그로잉 커뮤니티즈(Growing Communities)는 런던 동부 해크니(Hackney)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고, 상자 판매를 통해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농부들은 상자 단위로 자신이 재배한 상품을 판매한다. 지역 주민들은 소액의 돈을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상자와 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로잉 커뮤니티즈는 18명의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80명의 자원봉사자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에게 농산물의 재배 등에 관한 멘토링과 자문을 맡고 있다. 2006년부터 그로잉 커뮤니티즈는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그로잉 커뮤니티즈는 공동체지원농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상자 텃밭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처음으로 런던에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영국 최초의 전 유기농(all-organic) 농부의 시장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부의 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그림 4-14] 그로잉 커뮤니티즈 농부의 시장

시장에 참여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반경 60마일(약 100km) 이내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구매자들은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있으며, 소규모 판매자들은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농부의 시장에서 주민들은 우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크림, 유기농 빵, 유기농 채소, 계절 과일, 버섯, 생선, 케이크, 집에서 만든 파스타, 초콜릿, 아이스크림, 계란 등 지속가능한 가족 농장에서 재배한 수많은 먹거리들을 구매할 수 있다. 출점 농부들은 유기농 제품만을 판매하며,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농 재배는 물과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며 화석연료와 에너지 사용에서 매우 독립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의 생산은 야생동식물, 가축, 사람,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농부시장의 성공은 시장에 참여하는 농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고, 그 결과 2003년 농부시장이 시작된 이래로 400에이커(약 1.62km²) 이상의 토지가 유기농 생산을 위해 전환되었다.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노동 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했다. 이 생산방식으로 농부들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로잉 커뮤니티의 농부시장은 2009년 영국에서 최초로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정이 신선한 채소, 과일, 우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⁶⁾ 그로잉 커뮤니티는 상자 구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채소 혹은 과일상자를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5] 그로잉 커뮤니티의 다양한 채소·과일 상자

현재 그로잉 커뮤니티는 농부시장을 통해 소규모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23개 농장과 식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92%의 시장 이용자들이 도보,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부시장이 자동차 이동거리를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6] 그로잉 커뮤니티 농부의 시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

⁶⁾ 바우처는 200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수입과 자산규모에 따라 복지 수당 혹은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복지 프로그램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에 추가적인 바우처가 지급되며 구입항목은 우유, 과일, 채소, 영유아 분유, 우유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만 공급자들(농부)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런던 최소 생활비로 생활하는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잉 커뮤니티즈는 상자 판매 제도에 IT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는 2년간의 적자를 가져왔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상자 판매와 농부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표 4-3]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2013년, 2014년 이윤과 손실

구분	2013년(£)	2014년(£)
매출액	760,023	657,658
판매액	656,018	606,950
총 이윤	104,005	50,707
일반 관리비	59,939	53,793
영업 이윤(손실)	44,066	(3,086)
대부금 이자	231	131
(손실)/세전 경상이익	44,297	(2,955)
경상이익에 대한 세금	500	-
이월(손실)/회계연도 이익	43,797	(2,955)
이월 잔액	111,731	114,686
이월 잔액	155,528	111,731

주: Growing Communities(<http://www.growingcommunities.org/>)

1£ = 약 1,300.3원(2015년 12월 14일 기준)

상자 판매 수익금 이외에도 스타터 농장(Starter Farm)과 스타트업 프로그램(Start-up Programme)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국 전역에 있는 단체들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자 판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4] 그로잉 커뮤니티즈의 2013년, 2014년 수입원 분석

구분	2013년(£)	2014년(£)
상자 판매	495,802	426,484
정원 판매	12,010	8,847
농부 시장	51,239	35,842
카페	10,190	9,797
기타 교환 수입	22,838	5,886
보조금	167,944	170,932
매출액	760,023	657,789

주: Growing Communities(<http://www.growingcommunities.org/>)

1£ = 약 1,300.3원(2015년 12월 14일 기준)

(2)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Kentish Town City Farm)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Kentish Town City Farm)은 1972년 런던 도심부인 킹스 크로스 지역 캠든 한복판에 조성된 런던 최초의 도시농장으로 면적이 약 18,000m²이다. 주택가에 있으며 철도공사 부지를 임대받아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 공간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교실, 5살 이하 어린이를 위한 활동 교실, 연수 공간, 부엌, 마구간과 닭·소·오리·거위·염소·말·돼지·양 등 50여 종이 있는 동물정원, 야생동물을 위한 연못, 얼 로트먼트, 벌통,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데크, 휴게공간이 있다.

이 도시농장의 운영은 승마교관, 사육사, 교사, 코디네이터로 이루어진 상근직원 4명과 자원봉사자 140명, 14~18세의 청소년 인턴 10명, 트러스트 멤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정수입원 또한 다양하다. 최근 런던시 당국의 지원예산이 끊겨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다양한 후원기관에서 모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4파운드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판매하는 한편 범죄나 빈곤에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과 신체·정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용 사회원예와 농업프로그램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되는 파리의 도시농업

파리는 행정구역 면적이 서울의 1/6밖에 안 되고, 경작지가 많지 않아 옥상이나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건물 이용 도시농업이 중시되고 있다. 도시농업 담당부서인 녹지환경국은 환경교육과 생물다양성, 도시녹화 측면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파리지장 안 이달고 (Anne Hidalgo)의 도시농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파리의 공동체 텃밭은 2005년 0곳이었으나 2015년에는 100곳(총 5헥타르)으로 증가하였다. 이달고 시장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파리지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출처: Direction des Espaces Verts et de l'Environnement(2015)

[그림 4-17] 파리지 공동체텃밭 분포 현황

(1) Jardin Sur Le Toit

2009년에 조성된 ‘Jardin Sur Le Toit’는 파리지 최초의 옥상텃밭이며, 주택가 공터를 주민들이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한 데서 출발하였다. 총 면적은 약 600m²이며, 주민을 위한 체육관 부지로 부지개발이 확정된 이후 체육관 옥상을 활용하여 공동체텃밭으로 설계하여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및 실내 교육 공간, 미니온실, 장비보관소, 틀 텃밭, 파고라, 퇴비함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18] 파리시 최초의 옥상텃밭인 Jardin Sur Le Toit

Arfog-Lafayette라는 지역단체가 파리시와 ‘초록손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초록손 협약에 동의한 시민단체는 몇 가지 책임을 파리시에 지게 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9] 파리시 초록손협약

환경을 보존하면서 정원을 가꾼다.

정원에 시민단체에 속한 정원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시민에게 개방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공공행사를 개최한다.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원에 오는 방법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환경녹지국의 초록손팀은 다른 구청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정원을 운영한다.

(2) La Recyclerie

파리시 18구(區)에 위치한 La Recyclerie(재활용 가게라는 의미)는 70년 이상 된 오르나노(Oman)역이 폐쇄된 후 재활용을 콘셉트로 하여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역으로 70여 년간 사용되던 오르나노역은 1934년에 폐쇄되었으나, 파리시가 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바꾼다”라고 설정함에 따라 역사 본래의 분위기를 간직하면서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림 4-20] 파리의 La Recyclerie의 내부와 외부 전경

La Recyclerie는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역사 안은 아틀리에와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틀리에에서는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을 수선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식당은 La Recyclerie의 주요 자원인데,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La Recyclerie의 의자와 테이블, 포크와 나이프는 모양이 다 다른데, 가게의 거의 모든 물건이 재활용품이기 때문이다. 역사(식당) 바깥에, 폐쇄된 기차길 옆을 따라 길게 텃밭과 지렁이 퇴비통, 닭장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 텃밭은 유기농으로 관리하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한다. 양어수경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요가교실, 건강화장품 만들기 워크숍 등 문화예술과 환경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참가비를 받아 수익창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3) 이행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베를린

베를린은 템펠호프 공항공원이나 프린체신가르텐에서 보듯 도시농업이 특정 토지의 용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행기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행기 프로젝트란 독일에서 20~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의 빈 땅에서 다양한 시민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많은 공터가 생겨났고, 젊은 이주자가 많은 도시인 베를린에서 자연스럽게 이행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행기 프로젝트 때문에 공간 이용방식 결정 권한에 대한 시민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공원은 시민의 안녕과 여가를 위한 정온한 공간이라는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작공간에 대한 시민요구가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단 점거에 의한 가드닝 활동에 대한 고민도 있다. 홀츠마르크 강변프로젝트, 쿠브리 공터 프로젝트, 무지개공장, 프린체신가르텐, 템펠호프 공항공원 등이 모두 이행기 프로젝트이다.



[그림 4-21] 베를린의 다양한 이행기 프로젝트

(1) 프린체신가르텐(Prinzessinnengarten)

프린체신가르텐(Prinzessinnengarten)은 사회·생태학적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곳으로 베를린 Moritzplatz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프린체신가르텐이 있는 곳은 2009년 여름 이전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면적 6,000㎡의 방치된 곳이었다. 그러나 100여 명의 시민이 잔해를 함께 치우고 이후 자원봉사자 2천 명과 크라우드 펀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작지가 조성되었다. 2012년 도시개발에 밀려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주민 청원이 받아들여져 베를린시로부터 2017년까지 장기임대를 보장받았다.



[그림 4-22]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의 2009년(좌)과 2012년(우) 모습

프린체신가르텐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쇼(Robert Shaw)는 쿠바의 아바나⁷⁾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정원 조성 당시부터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어 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다.

프린체신가르텐은 비영리단체인 노마디쉬 그린(Nomadisch Grün)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마디쉬’는 유목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프린체신가르텐의 농업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모든 작물은 땅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자 혹은 자루에 담긴 흙에서 재배된다. 정원이 조성되기 전 오염된 부지였던 것도 원인이겠으나, 공간의 이동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프린체신가르텐은 베를린 시로부터 임시로 토지를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이동식 가든 시스템은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Nomadisch Grün, 2012).

2009년 첫해에는 약 75%의 농작물을 버려야 했다. 그러나 2년 후, 2011년에는 지금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약 500종의 채소와 허브가 재배되고 있다.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화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동경작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프린체신가르텐은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와 유치원 등과 연

7)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세계 도시농업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728km²의 면적 중 약 40%가 넘는 299km²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유기농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바나 시 전체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이 도시텃밭에서 생산된다.

제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컨설팅 등 60여 개의 텃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개방되며, 파종, 재배, 수확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채소의 보관, 양봉, 퇴비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농업 방식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생물다양성, 도시생태학, 기후변화 적응, 재활용, 지속가능한 소비, 도시생활의 지속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프린체신가르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종다양성’이다. 프린체신가르텐은 매해 종자 다양성 장터 행사를 개최하고, 정원에서 길러지는 500여 가지 작물의 재배경험을 공유하며 씨앗을 나누는 소셜씨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린체신가르텐은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양한 수익창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정원 내에는 여러 협력단체(자전거공방, 피자재공방, 실내작농연구팀, 도시연구팀, 농업기술연구자)가 공존하여 협력하고 있다. 출판, 가이드투어 등의 수익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벼룩시장, 심포지엄,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3] 프린체신가르텐의 다양한 사업

(2) 우파 파브릭(Ufa Fabric)

우파 파브릭(Ufa Fabric)은 1976년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문화의 오아시스를 표방하는 예술교육문화공동체, 다양한 공연문화 예술 활동, 페스티벌, 국제 교류, 주민 참여와 가족 지원, 생태적 지역공동체 지원 및 생태적 저항과 지속가능발전, 유기농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조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6년 “You Are What You Eat”을 주창하며, 건강식품협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77년 ‘Rethink, Recycle’을 주제로 한 6주간의 환경페스티벌을 주최했던 대안운동가 그룹이 1979년 6월 9일 이미 파산한 우파 파브릭 영화사 건물에 들어와 대안문화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면적은 약 18,566㎡에 달하며, 텀펠호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우파 파브릭 산하에는 다양한 조직이 각종 프로젝트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센터, 문화센터, 동물농장, 어린이집, 베이커리, 공연장, 대안학교, 생태연구소, 게스트하우스, 유기농판매장, 카페 등이 이러한 사업들이다.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덕분에 현재 34명의 거주자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220명의 직원을 합하여 254명이 일하고 있으며, 연간 2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생태대안문화·교육 관련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4-24] 우파 파브릭의 생태프로젝트

우파 파브릭은 4가지의 생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옥상녹화로서 식물의 에너지 대사를 활용하여 온도를 낮추고 단열효과를 거두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태양광 발

전으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비전력 사용 발전으로 옥상녹화와 병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셋째는 빗물 이용으로 지붕의 빗물을 저장하고 식물의 뿌리를 통과시켜 정화하는 방식으로 가드닝과 연계한다. 넷째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황토, 짚, 억새, 마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3) 템펠호프 공항공원(Tempelhofer Feld)

템펠호프 공항공원(Tempelhofer Feld) 이행기 텃밭은 나치시대 조성된 공항부지에 조성된 것이다. 원래 베를린시는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한편 사회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2010년 4월 약 356m²의 부지에 텃밭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1년 텃밭이 개방되었다. 현재는 900여 명의 시민이 300여 개의 올림텃밭과 다양한 재활용 플랜트박스를 사용하여 경작공간을 가꾸어 가고 있다.

운영은 텃밭 조성을 주도하였던 알멘데 콘토어(Allmende-Kontor)가 경작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개의 지역조직이 경작지 일부를 관리한다. 템펠호프 공항공원의 전체적인 관리운영은 시가 출자한 공영회사 그린 베를린이 맡고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으로 실험을 해가고 있다. 재정은 300개의 올림텃밭마다 연간 60유로의 회비를 받아 충당한다. 이와 별도로 연 15유로의 회비를 알멘데 콘토어 운영비로 납부하기도 한다.

알멘데 콘토어는 베를린 시민정원과 도시농업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단체이다. 여기에서 알멘데(Allmende)는 옛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공유지를 일컫는 말이며 콘토어(Kontor)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공유자산을 시민이 가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당초 알멘데 콘토어는 정원활동 경험을 가진 13명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자와 협력자들이 함께 2010년 설립하여 도시개발, 소비, 식량주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템펠호프 공항 내 일부 공간에 경작 허가를 받아 약 20명의 시민이 10개의 올림텃밭 경작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베를린의 시민정원들과 다양한 시민활동, 재단과 연구자, 정부와 협력관계에서 네트워킹과 교육, 연구, 공동체텃밭 운영, 컨설팅 등의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템펠호프 공항공원은 공동체텃밭 운영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는 이, 텃밭참가비와

알멘데 콘토어(Allmende-Kontor) 운영회비를 납부하는 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할당된 한 개의 텃밭당 보통 3명 정도가 공동 경작하는 방식이며, 2주에 한번 정기적인 공동 경작의 날에는 다른 사람의 경작지도 함께 돌본다. 또한 공동체텃밭에서 필요한 휴과 거름을 자체적으로 순환시키고 피크닉과 음악행사 등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공동체텃밭은 올림텃밭(호프베드 방식)으로 경작하는데, 이는 템펠호프 공항공원이 이행기 프로젝트 지역이라 변동가능성이 있고 오염가능성도 있어 땅에 직접 경작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텃밭에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 방문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기 텃밭의 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등 피해를 주면 안 되며, 화학비료나 살충제는 물론 유전자조작식물과 하이브리드 씨앗도 금지하고 있다.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자연재료를 이용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소재를 재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과다사용은 금지해 친환경 운영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림 4-25] 템펠호프 공항공원의 공동체텃밭

베를린 시민들은 경작지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공유 공간이라 여기며, 텃밭을 가꾸는 행동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4) 유럽 도시 사례의 시사점

(1) 교육 효과 증시

서울시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농부학교 운영,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 도시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교육서비스 제공 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콘텐츠도 다양하다는 것이 서울시와의 차이점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 기업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육 대상도 일반 어린이부터 비행청소년, 장애인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런던에서는 동물(소, 돼지, 닭, 양 등)을 기르고 있는 농장들이 많아 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4-5]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구분		교육프로그램
런던	Kentish Town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 KS1(5~7살), KS2(7~11살), 30명까지 단체
	Freightliners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00개 학교, 2000여 명 학생이 참여 • 런던대학 네트워크에서 공인된 대안교육코스 운영, 국가공인 수료증 부여 • 농장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국가공인인증 과정기회 제공 • 사회봉사명령으로 오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치료용 프로그램(Therapeutic Program) 운영
	Hackney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파트너십으로 13~16세 청소년대안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운영 • 먹거리 키우기, 서식지 보전, 재활용, 식물 키우기, 부화하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파리	La Recycler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위한 DIY 워크숍 : 수시, 오후3시~4시 30분, 참가비 10유로
베를린	Prinzessinnen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유치원 등과 연계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교육컨설팅 등 60여 개 텃밭 지원

(2)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사회는 선순환구조로 되어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및 소비활동은 대부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은 일반 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때와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들과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설립이념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도시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농작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협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럽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4-6】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과 지역사회의 연계

구분		내용
런던	Kentish Town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나 빈곤에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과 신체나 정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용 사회원예와 농업프로그램 연계 프로젝트 운영 •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경영전략을 짜는 운영위원회 존재
	Freightliners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정원을 조성하여 분양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꿈
	Hackney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수확축제 진행
베를린	Klunkerkran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예술가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노마드키노(야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Prinzessinnen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해 종자다양성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정원에서 길러지는 500여 가지 작물재배 경험을 공유하며 씨앗을 나누는 소셜씨드 운동 전개 • 생태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자원활동으로 경작(가드닝데이)

런던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장의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또한 프라이트라이너스 도시농장(Freightliners

City Farm)은 텃밭을 개인에게 따로 분양하지 않고 공동경작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경작방식은 베를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베를린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행기 프로젝트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행기 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경작지와 경작을 모두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3) 생활권 녹지 역할

도시농업의 대표적 순기능 중 하나는 녹지의 제공이다. 도시에 녹지가 증가하면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를 유지·보존하는 역할뿐 아니라 공한지 상태보다 표토 유실을 줄이고 도시 내에서 물 순환에 도움을 준다. 유럽 도시들은 도시농업의 이러한 역할에 주목하고, 경작지를 확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작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파리의 옥상텃밭과 같이 건물을 이용해 녹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4-26] 베를린·런던·파리 도시농업의 생활권 녹지 역할

(4)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도시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된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 영국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은 동물 요소를 활용하여 힐링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은 농장에서 기르는 말을 이용해 장애아동을 위한 승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이 있는 대부분의 런던 도시농장에서는 이를 어린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림 4-27]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프로그램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영국의 프라이트라이너스 도시농장은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혹은 제빵, 수공예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파리의 La Recyclerie는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 건강화장품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베를린의 프린체신가르텐은 출판 및 가이드투어, 음식점, 교육 등, 조사한 외국 사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다각화로 수익창출 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4-7] 유럽 도시(런던, 파리 베를린)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분		비즈니스
런던	Kentish Town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프로그램(장애아동을 위한 승마치료 등) • 동물테라피(발달장애, 분노장애, 알츠하이머 어르신 대상)
	Freightliners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프로그램 • Paradise Park 여름이벤트로 집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 베이킹, 수공예 경연대회
	Hackney City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ggerston Orchard Project 공원 내 일부공간에 과실수를 심고 도심 속 과수원 프로젝트(The Urban Orchard Project)와 연계
파리	La Recycler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화장품 만들기 워크숍 : 참가비 35유로 • Maskbook : 기후와 건강의 연계를 상징하는 마스크를 이용한 이벤트
베를린	Klunkerkran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공대와 협업하여 테라프레타, 다양한 식물을 함께 심어 서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작방식 실험 • 쉬탄과 협업하여 오픈소스로 개발된 비전기 자동 급수시스템 운영 • 바이센제 예술학교와 협업하여 천연염색을 위한 텃밭 운영 및 워크숍
	Prinzessinnengar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가이드투어 등의 수익사업 운영 • 정원 안에는 여러 협력단체(자전거공방, 폐자재 공방, 실내작농연구팀, 도시연구팀, 농업기술연구자)도 공존하고 있어 협업
	Ufa Fabr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프로젝트(옥상녹화, 태양열발전, 빗물이용, 스트로베일 하우스)

반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이러한 단일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현재의 일자리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사업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5) 다원적 가치 중시

현재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내용이 단일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유통 및 도매를 하는 기업은 이 분야에 기업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의 도시농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 복지, 치유, 생물다양성, 환경, 문화, 예술, 사회적 연대 등 모든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종합적·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창출 구조가 다양해져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런던의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은 농장 내에서 기르는 가축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발달장애·분노장애·알츠하이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농장 프로그램에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같은 목표에 치우치지 않고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28] 켄티시 타운 도시농장의 다원적 가치

3_아시아 도시 사례

1) 식량자급률 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싱가포르

(1) Edible Garden City

싱가포르는 농산물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하며 7% 정도만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에 문제를 느낀 비혼 로(Bjorn Low)와 환경운동가 2명이 함께 사회적기업으로서 Edible Garden City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모토는 “Growing Your Own Food”라는 문장으로 표현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비어있는 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옥상을 활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농장의 넓이는 40㎡의 작은 땅이며, 2,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 옥상텃밭에서는 중국 녹차와 약용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림 4-29] 싱가포르 Edible Garden City의 전경과 상자텃밭

Edible Garden City는 재배한 농작물을 지역사회와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한편 도시와 식량 시스템에 대한 워크숍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허브와 채소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Comcrop

Comcrop은 Orchard 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6,000m²이다. 지리적으로 Orchard 거리는 Valley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람으로부터 바다가 불어오는 곳이다. 이러한 환경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알맞은 조건이다. Comcrop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를 도시농업에 접목하였다. 아쿠아포닉스는 상업적 물고기 양식을 의미하는 수산양식(aquaculture)과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한 것이다. 이 방식은 호수 생태계와 유사하며 지속가능한 재배방식이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배설물을 작물 재배의 양분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화학적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충제도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아쿠아포닉스가 아직 유기농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mcrop의 공동설립자들은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탈리피아(아프리카 동부·남부 원산의 민물고기)를 이용한다. 탈리피아의 배설물은 박테리아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이는 식물을 위한 영양분으로 사용된다.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방법이고 에너지와 물과 같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나의 프레임은 24개의 수경재배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Comcrop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것이다. 2014년 기준 10~12개의 프레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1톤 정도의 수확물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옥상에서 잘 운영된다. 왜냐하면 물이 온도를 낮춰주고, 이는 싱가포르의 무더운 기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4-30] 싱가포르 Comcrop의 아쿠아포닉스

Comcrop은 옥상에서의 아쿠아포닉스를 어떻게 하면 도시농업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 8개월간 강도 높은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8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둔 연구는 기후였다. 대부분의 도시농장은 열대기후 지역이 아니라 온난기후 지역에 있다. 싱가포르의 날씨는 매우 덥고 습기가 높은 열대기후에 가깝다.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직농법(Vertical Farming)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후와 옥상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아쿠아포닉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한 도시농업이 전망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신선하며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있는 한 사업은 확장 가능할 것이다.



[그림 4-31] 싱가포르 Comcrop의 농작물 재배 모습

이들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80-20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80-20 원칙이란 수익의 20%는 반드시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Comcrop은 수익의 20%를 자선사업단체 혹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상업적 생존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은 농장 면적의 20%에 공동체텃밭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텃밭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며 교육도 할 수 있다. 농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주된 내용은 아쿠아포닉스에서부터 흙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교육을 통하여 그들 가정에도 도시농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일본 도쿄의 생활클럽생협

일본에는 약 500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그 중 도쿄의 생활클럽생협은 1965년, 200여 명의 엄마가 모여 우유의 공동구매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우유는

가공 우유밖에 없던 시절 생산과정이 투명한 우유를 먹기 위해 낙농가와 200여 명의 어머니가 공동 출자를 하여 직영 우유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사육환경, 생산자, 원유의 품질관리, 제조일자, 가격까지 모두 파악하여 매우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이 생활클럽 개념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4-32] 생활클럽생협 도교와 제휴하는 지역생산자 지도

오늘날 생활클럽생협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기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생산자와 함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4-8] 일반시장과 생활클럽생협의 비교

일반시장	생활클럽생협
경쟁원리-농산물의 상품화	협동원리, 식량으로써의 먹거리가 가진 가치를 소중히 여김
수입 농산물의 급증-자급률 저하	국내의 자급력 향상
먹거리에 대한 불안, 유전자조작·잔류농약 등	재래종자와 농법의 추진, 생산자와 공동개발
고령화-농업후계자 부족	농업 계획에 참가, 위탁농사 조직화

자료: 토미자와 렌, 2015

생활클럽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의 ‘출자’, ‘이용’, ‘운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33] 생활클럽생협 도쿄의 메커니즘

조합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사업 혹은 활동을 하기 위해 출자금을 낸다. 생활클럽생협의 사업은 출자금에 의해 운영되며 생협을 탈퇴할 때 출자금은 전액 환불된다. 또한 모든 조합원이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재⁸⁾를 구입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더불어 조합원 모두가 생협의 소비재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브레인 스토밍에 참여해 ‘모두 출자’, ‘모두 이용’, ‘모두 운영’의 메커니즘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활클럽생협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위탁농사 네트워크 NPO법인 ‘타기야스’는 도시농업을 공유농업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도시에서 취농자(유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이들을 시민체험농원에 배치하여 육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유사하다. 취농자가 배치된 시민체험농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채소재배 지도, 이벤트 개최,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잉여 채소는 직판소에서 판매되거나 집으로 배송된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제공하려는 주부모임과 음식물퇴비를 제공받은 농가를 연결하여 농가의 판로를 열어주고 주부모임은 싼 가격으로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 생활클럽생협에서 취급하는 식품 및 생활 잡화는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 부르는 대신 ‘소비재’라고 명명하고 있다.

3)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도시

이 연구의 사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채소의 80%, 돼지고기·닭고기·민물고기의 50%, 계란의 40%가 도시 내 또는 도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며, 중국은 도시 주민이 먹는 채소의 85%가 도시 내부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텃밭 보급소, 2011). 아시아 도시 중에서 도시농업이 제도적으로 가장 잘 발전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시민농원 형태의 도시텃밭이 형성되었으며, 협동조합의 규모도 상당하다. 실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2008년 실적을 기초로 분석한 2011년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농업 분야 협동조합 매출액의 1위(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젠노)와 2위(일본 전국공제생협연합회, 젠쿄렌)는 모두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젠노의 매출액은 약 570억 달러에 달한다.⁹⁾ 협동조합을 비롯한 일본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왕이면 내 손으로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도쿄의 생활클럽생협이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도 생산과정이 투명한 안전한 우유를 먹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힘을 모으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도 식품첨가물, 유전자조작원료 등의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도시농업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할 때 안전한 먹거리인지 꼼꼼하게 검사하여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쿠아포닉스와 같은 다양한 실험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도시농업은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생활권 녹지, 치유농업 등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도시들은 먹거리 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⁹⁾ 한겨레, '세계 300대 협동조합기업' 들여다보니, (2012.05.08.),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농부의 시장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4_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 다양한 수익창출 구조

외국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자본력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와 결합된 도시농업 사회적경제기업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수공예 경연대회, 건강화장품 만들기 워크숍, 가이드 투어, 음식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칠 때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외국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외국 도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일자리, 자원봉사 기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입원이 됨으로써 서로 상생(win-win)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3)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대부분의 외국 사회적경제기업이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 대상도 일반 성인 중심이 아니라 비행청소년, 장애인까지 포함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4) 확실한 설립동기와 콘셉트

식량 자급자족 강화, 일자리 제공, 먹거리 제공 등 외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설립 목적과 동기가 확실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고 이는 경영능력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서울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설립 동기를 더욱 명확히 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5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 1_경작공간과 도시농부의 확대
- 2_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증진
- 3_제도적 지원의 다양화와 구체화
- 4_도시농업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05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1_경작공간과 도시농부의 확대

1) 경작공간 확대는 곧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의 기반

(1) 도시농업공원 조성의 확대

도시농업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하려면 도시농업의 기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경작공간 확보이고 그에 따라 확산되어야 할 것은 도시농부이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도시농업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장기미집행부지 중 60% 이상이 공원부지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서울특별시, 2013).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3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법 중 주제공원 항목에 도시농업이 추가되어 앞으로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도시농업 발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준 뒷받침이었음에도 개정된 지 2년이 넘는 지금까지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많지 않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총 4개소의 도시농업공원(강동, 창동, 노들, 길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¹⁰⁾ 이 법을 만들 때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막상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에서 75개소 공원(자치구별 3개소)에 텃밭을 조성하여 근거리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건축 조경면적에 반영되도록 하고, 아파트 건축 시 도시농업 공간 확보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도시공원

¹⁰⁾ 참고로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16.2㎡이지만 1인당 도시농업면적은 약 0.11㎡에 그치고 있다.

내에서 도시농업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례 및 도시농업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텃밭 조성을 통한 생산적 활동 이외에도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자연생태계 보호, 이웃 간 교류 활성화 등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형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례로는 관악구 선봉어린이공원이 있다. 선봉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설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4년 폐쇄됐다. 이 공원은 예산 부족으로 새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서울시와 한국 공원시설업 협동조합이 함께한 민간협력 공원조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대통합형 공원(성인을 위한 친환경 텃밭과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을 함께 갖춰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텃밭이 포함된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재단장될 가능성이 높다.

(2) 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존 농지의 활용

도시농업 경작공간을 확대하려면 도시 안과 밖에 적지 않게 존재하는 기존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는 경작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원칙 때문에 토지주가 도시농업을 위해 임대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임대해 줄 경우 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를 물게 되어 있어 일선에서는 농지를 실제로는 임대해주면서 계약서를 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주가 계속 자경하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임차농에게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다. 농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체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일부 임대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로 1,000㎡ 이하의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도시농업이 확산되는 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서울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도시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례 조항을 두어 도시농업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도시농업에 임대해 줄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심 안에 있는 나대지는 실제 농지로

쓰이고 있으면 농지에 준한 재산세를 물게 되어 있다.¹¹⁾ 대지로 세금을 낼 경우에 비해 35%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 세제 감면 효과가 적지 않다. 이를 이용하면 많은 나대지가 경작지로 이용될 길이 열릴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을 하려는 경작지는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를 감면할 방법이 있다.¹²⁾

(3) 다양한 유형의 텃밭 조성

서울시 조경과는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건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열섬현상 완화, 냉난방에너지비용 절감, 대기질 개선, 홍수 방지, 생물서식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구조안전 진단 설계를 하는 한편, 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을 펼쳤다. 2014년에는 23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자부담액을 확보한 건물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급),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근거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공공건물 23개소(옥상녹화 9,193㎡)에 23억 1,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옥상 정원이 여름철 실내 온도를 4°C가량 낮춰 냉방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2011년 이후 약 3년 동안 114억 원을 투입하여 660여 곳에 옥상정원이 조성되었으나, 2015년 8월 서울시 점검 결과 식물 생육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문을 걸어두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4곳 중 1곳은 관리 상태 불량 등 부적

1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합 판정을 받았다.¹³⁾

옥상텃밭 및 공원화 추진 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는 다소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이다. 식물 생육 상태나 관리 상태가 불량해진 것은 관련 전문가의 접근성이 차단된 결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텃밭 중심으로 조성되는 옥상은 사후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조경면허 보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조경면허 없이도 텃밭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동안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옥상 텃밭 조성사업에 진입하지 못했던 장벽이 해소될 수 있다.

옥상텃밭 이외에 기존부지의 나눔을 통한 공동체텃밭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도시농업진흥법」 기본시책에 제시된 ‘도시농업 관련자의 상호연계’와 ‘필요한 법제·재정·세제·금융상의 조치 강구’는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 꼭 필요한 사항이다.

[표 5-1] 복미의 공동체텃밭 유형 분포 현황

(단위: %)

구분	텃밭 유형 비율	구분	텃밭 유형 비율
마을 텃밭	43.76	구획이 있는 대규모 농장	2.30
학교 텃밭	3.04	노인센터 노인주택 텃밭	3.36
공공주택 텃밭	9.65	직업훈련·청년고용 텃밭	1.49
교회 텃밭	20.32	치유 텃밭	5.96
복합용도 텃밭	7.29	기타	2.84
합 계			100

출처: Lawson and Drake, 2013, Community Gardening Organization Survey 2011-2012

하지만 [표 5-1]의 복미 공동체텃밭 유형 분포 현황을 보면, 마을 텃밭과 교회 텃밭의 비율이 전체 텃밭의 60%를 웃돌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텃밭 대상지를 확보하고 공동체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 및 기업이 소유한 건물의

¹³⁾ JTBC, 도심 고온 현상 완화한다더니...방치되는 '옥상 정원', (2015.08.18.)

옥상을 마을 텃밭으로 제공하게 하고, 종교시설도 부지 일부를 공동체텃밭으로 제공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텃밭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기업, 종교시설 등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에 학교텃밭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학교텃밭의 조성 규모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되어 온 학교텃밭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에 따르면, 인성과 관련된 사회성·자아존중감 지수와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의 변인들이 대부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가치를 확산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학교텃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텃밭 160곳을 조성하였고, 각 지자체도 3,500여 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시는 2020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런 다소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텃밭 토양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성 텃밭의 지속적 관리

이렇듯 다양한 유형으로 텃밭이 조성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및 강사 인력풀이 운영되어야 한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학교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텃밭강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교텃밭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인성프로그램도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텃밭강사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지원처럼 서울시는 ‘텃밭강사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텃밭강사들이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어 사회보험에도 가입되고, 텃밭강사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성 후 방치되지 않도록 ‘텃밭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텃밭제어’는 영국의 ‘랜드셰어’¹⁴⁾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싶은 사람, 혼자서 텃밭을 일굴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14) 영국 ‘랜드셰어’라는 회사는 웹사이트(<http://www.landshare.net/>)를 통해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남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다.

온라인,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텃밭셰어’ 시스템을 도입하면 토지 주인은 유희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해주어 수입을 얻고, 경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의 공유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2) 서울도시농부 등록제 활용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옥상 면적은 166km²로 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2.9km²)의 60배 정도에 이른다.¹⁵⁾ 서울의 공원녹지 면적은 총 170.08km²로 행정구역면적(605.21km²)의 28.1%를 차지하고 있지만, 70% 이상이 외곽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생활권 주변의 공원녹지를 늘려나가기 위해 2015년에는 자투리땅, 옥상 등 524개소에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2,104개소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조성되는 524개소는 숲 240개소, 정원 284개소이다. 전체의 333개소는 시와 자치구가 주도하고, 나머지 191개소는 주민 및 민간 참여로 조성한다. 2014년에는 동네뒷산 공원, 학교 주변, 방치된 옥상, 도로변 등에 총 480개 숲정원(숲 220개소, 정원 260개소)을 조성 완료하였다. 인구 과밀화, 주거·사무 공간 밀집 등 서울의 여건 때문에 도심 속 버려진 곳, 동네뒷산, 옥상 등 공원소외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면적의 1/4을 차지하는 옥상 공간은 정원 조성, 태양광 설치, 텃밭 조성 등 3가지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정책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 도시농업과는 2018년까지 텃밭면적을 420ha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은 ‘텃밭셰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성되었으나 방치된 옥상정원이나 텃밭을 되살리고 공동체 형성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현장방문이 대부분으로, 조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실태조사의

15) 헤럴드경제, 올해 서울 자투리 땅·옥상 등 524곳···2018년까지 숲정원 조성, (2015.03.24.)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서울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을 서울도시농부로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도시농부 등록제는 농지원부를 가진 농민처럼 유형(옥상, 베란다, 마을, 학교 등)이 다르더라도 텃밭을 가꾸는 서울시민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등록을 하면 도시농업 실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공공재로 생산된 도시농업자재(자원순환형 퇴비, 흙 등)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주는 제도이다. ‘도시농업공동체등록’ 제도와 함께 운영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및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_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증진

1)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증진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도시농업 정책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상생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2]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도시농업 정책 비교

구분	서울시 도시농업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정책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과 도농상생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삶의 질 향상 ◆ 도농상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 교육·인력양성·홍보 강화 ◆ 도농 상생사업 확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 미래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 사회문화적 역할 증대 ◆ 도시농업 시민소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도시농업단체 간 상생 협약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민단체의 기술·정보 지원 ◆ 농산물 과잉생산, 소비위축 시 소비촉진 운동 공동 전개 ◆ 귀농·귀촌의 선행학습으로 도시농업 교육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상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교육을 귀농귀촌의 선행학습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산물 과잉생산이나 소비 위축 시 농민단체·도시농업단체 간 소비

촉진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민단체의 기술과 정보를 도시농업 희망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와 사회문화적 역할 증대에 노력하고, 도시재생을 자원순환과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의 핵심이자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은 공동체 활성화이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이는 지역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 공동체 간 상호연관성을 더욱 단단하게 엮는 계기로 작용한다. 도시농업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포함하고 내용을 발전시켜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도시지역 5인 이상의 가구가 모여 100㎡(30평) 이상의 텃밭 경작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군 도시농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공동체 육성 및 국민 행복을 위한 공동체 정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조직 결성 및 예산 지원 등 사업을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물 재배 프로그램 보급과 종자인 꽃씨, 허브 작물, 채소, 묘목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체 정원은 총 9개소로 1만㎡ 미만부터 2만㎡ 이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실수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조성된다. 선정된 시범사업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운영은 공모에서 선정된 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이 맡게 된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으로 지속가능하려면 매출을 발생시켜줄 소비자가 필요하고, 소

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소비를 해주어야 한다. 만약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신뢰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은 도시농업이 안성맞춤이다. 도시농업은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간 협력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순환으로부터 멀어져 발생한 대부분의 도시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농업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도시농업을 이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다. 현재 도시농업을 접목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나 도시농업 관련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¹⁶⁾를 대체하는 목표이다. 2012년 브라질 Rio+20회의부터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 9월 25일 UN 193개 회원국 대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목표인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이 이 연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¹⁶⁾ 2000년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이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과 같이 개발을 저해하는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 및 이행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합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8개 의제 개발 목표를 의미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되었으며,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유엔체제 하의 최초의 개발목표이며 8개 의제 분야 목표는 ①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④아동사망률 감소, ⑤모자보건 향상, ⑥각종 질병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⑧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사회적경제기업과 도시농업은 모두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실업과 사회적 소외라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역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한 측면인 사회 통합을 증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해왔으며, 지역사회의 기반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주민에게 고객으로서의 기회뿐 아니라 고용의 기회도 제공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때문이다(채종현·이종한, 2009).

도시농업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 도시농업은 지속가능발전의 3요소인 경제, 사회, 환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경제적 효과로는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의 육성, 시장 활성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충족 등이 있다. 사회적 효과로는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빈곤 완화, 사회적 통합,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 환경적 효과로는 도시의 녹지 역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도시 생태발자국 저감, 생물다양성·경관의 관리, 폭우·홍수 영향 감소, 물순환 기여 등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이미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여 빈곤, 환경, 식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시농업이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의 완화와 기아의 종식’, 그리고 일곱 번째 목표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선 도시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급자족으로 인해 영양가 있고 안전한 채소를 섭취하게 되며, 식비 지출이 감소한다. 먹고 남은 잉여생산물은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화된 상품을 재배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알맞은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농작물의 공급을 증가시켜주며, 경관과 생태계의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농업은 식량 및 영양 문제 개선,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 강화,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모든 분야의 개선을 가져온 것이다.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농산물 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및 영양상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곧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엄격하게 판단하자면,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기보다 불안정한 성장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고 기반이 탄탄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에 경제·사회·환경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_제도적 지원의 다양화와 구체화

1) 대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국내외시장에서 중요하게 부각됨

에 따라 여러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실제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의 기업들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공유가치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려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때 분야가 맞는 기업끼리 매칭하여 지원을 한다면 판로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농업을 지원하려는 기업과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이나 우수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이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너무 세세한 항목까지 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이나 설립 이념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립기반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

2)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1) 도시농업 생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도시농부라면 누구나 직접 생산한 도시텃밭작물을 이용하여 공방에서 가공·제조하여 도시농부장터나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즉석식품제조업, 천연비누제조업 등의 허가를 내어 ‘소셜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생산·유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에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도시농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제도화함으로써 도시텃밭 생산물이 가공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농업이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중증장

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대상기업들의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연계되는 공공시장영역에는 민간위탁, 정부 재정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있지만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계약제도는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5%(약 3,500억 원)대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5년 10월 34개의 단체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다.¹⁷⁾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주체 간의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산점을 신설·확대하였다.¹⁸⁾ 이 제도에 따라 7개 주요생산물목¹⁹⁾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제품에

17) 최저가격낙찰제(lowest bid)는 약자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공익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되는 추세이다(서울 사회적경제포털, <http://sehub.net/>).

18)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사회적기업(1.2점)과 예비사회적기업(0.6점)에만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1.8점, 예비사회적기업 0.9점으로 가산점이 확대되는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1.8점)과 자활기업(0.9점)에도 가산점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 7개 품목은 ①실내건축, ②청소, ③행사공연, ④간병, ⑤경인쇄, ⑥화장지, ⑦식품이다.

대한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가산점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여 자본력이 큰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8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 따르면 사업수행자 선정 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총 공공조달액(556억 원) 중 농·수·축산물은 약 1.5%(8억 8천 7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민간위탁연구소, 2014). 공공기관의 도시농업 제품 구매율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농·수·축산물 구매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2009년 로컬푸드 지원법을 제정하여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구매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²⁰⁾ 두 번째는 도시농업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친환경 무상급식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강동 도시농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동 도시농부는 2012년부터 3년째 지역 내 구립·서울형 어린이집 20곳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텃밭체험학습과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납품 시 농작물 안전성 검사를 수반하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들이 모두 일자리 창출 분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약 65%

²⁰⁾ 매년 2%씩 로컬푸드 구매율을 높여 2020년까지 10%를 달성한다(Illinois Local and Organic Food and Farm Task Force, 2009)

는 일자리 제공형이 차지하고 있으며 혼합형과 기타형도 대부분 기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가치가 일자리 사업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유럽 도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가 일자리 제공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이념과 부합하도록 지역사회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자, 지역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4_도시농업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정부부처 간 협업이 도시농업 및 관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듯이 서울수도 2015년 4월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분야별 추진계획에서 밝힌 TFT 구성 및 운영을 주적으로 실행하여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직 구성도 도시농업과, 푸른도시국(조경과, 공원정책과, 공원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외에 마을공동체 담당관,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사회적경제과, 건강증진과, 물순환정책과 등도 포함시키고 주요기능도 공원 내 도시농업 조성, 낙엽·가로수 자원화 사업 추진 외에 부처 간 관련 사업으로 넓혀야 한다.

서울시에는 라이네씨,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텃밭보급소, 송석문화재단, 도시농업포럼이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교육 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시민들이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텃밭 정보와 농자재 보급 등에 대한 역할은 미흡하며, 각 지원센터 간 교류와 소통의 채널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도시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공동체에서 신뢰를 쌓는 것 못지않게 도시농업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도시농업 중간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취미·여가형 도시농업에서 수익형 모델을 추가하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시농업의 주요정책은 주민주도형 생활형텃밭 보급과 다양한 사회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형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음식물퇴비화 처리장 시범 운영 등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협력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평 혁신파크 도시농업 조성과 고부가가치 옥상농원 시범운영 등의 미래형 도시농업 정책을 2015년부터 신규로 펼치고, 도시농업 민간 ‘중간지원 기구’ 설립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각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도시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관리, 민관거버넌스 실현, 도시농업분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가를 길러내는 중간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에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림 5-2] 파리지 도시경작 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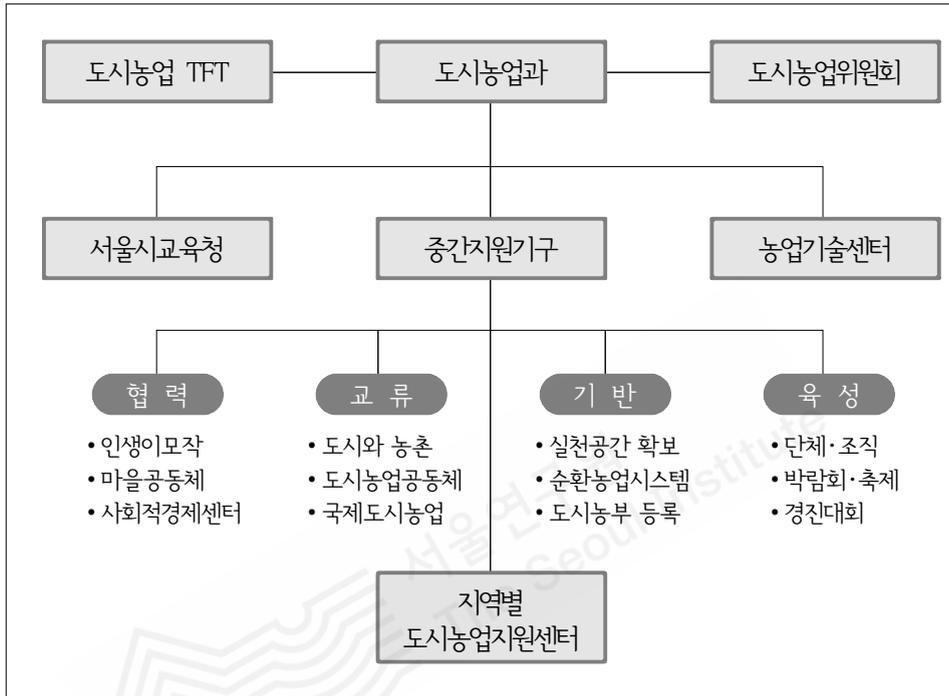
[그림 5-2]에서 보듯이 파리시는 도시경작 지원본부가 중간지원조직이자 공간적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시 도시경작 지원본부에는 교육용 채소밭을 비롯해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자료실, 아뜰리에 등이 구비되어 있다. 서울은 어린이대공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는 유럽 도시농업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카페, 식당, 판매장, 교육장, 텃밭, 동물사육장 등이 이미 있으니 이곳에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간지원기구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19조(교류 협력 등)에 제시된 사업(도시농업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 위에 조성한 텃밭과 상자텃밭 보급 중심의 사업을 ‘조성·보급 후 관리시스템’으로 바꾸어 예산 낭비를 막고, 도시농자재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시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농자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목록을 작성·고시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시민에게도 널리 알려 안심하고 이들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협력기능 :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농촌일손돕기 사업, 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동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도시농업 분야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진행 등
- ② 교류기능 : 도시와 농촌 농부의 시장 개최, 다양한 도시농업공동체 간의 교류, 국제 도시농업단체와의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등
- ③ 기반 조성 : 텃밭세어 등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대상지 발굴, 도시농업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도시농부등록제(개인 및 단체)로 도시농업 실천 통계 및 실태 파악과 관리 등
- ④ 육성기능 : 도시농업분야 청년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 도시농업박람회·축제 개최로 도시농업 인식 제고 및 도시농부 증가 유발, 경진대회를 이용해 도시농업공동체 발굴 및 육성 등

⑤ 기타 : 각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조정, 도시농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관리, 민관거버넌스 실현, ‘텃밭강사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지원, 도시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그림 5-3] 도시농업 중간지원기구의 기능과 조직도안

유관기관인 서울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학교텃밭(서울시교육청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텃밭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텃밭전문가 육성 및 교원 연수를 시행한다. 지역별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기별로 필요한 도시농업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생활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자재 바꾸쳐 시스템 등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도시농업 중간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먼저 조성해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우호적 시장을 개발하고 상품 경쟁력과 공급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크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있다. 중간지원기구가 이러한 지원 내용을 도시농업분야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도시농업 분야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사업

분야	추진 전략 및 내용
B2G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 공공구매 콜센터 운영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 운영 지원 공공구매 인식 제고 사업(설명회, 실무교육, 컨설팅)
B2B	비즈니스 자원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공동사업(서비스 상품) 개발 지원 선배기업 자원기반 비즈니스 협력사업(네트워크 구성 지원)
B2C	유통채널 입점 & 상품화 지원(한국MD협회 소속 250명, 현직 MD)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연세로 장터) 365 팝업마켓 구성(잠실광장마켓 모델 확산)

출처: 월간 서울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세미나 자료, 2015.9.23

2018년까지 2012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와 협력하여 도시의 음식물쓰레기, 낙엽, 커피찌꺼기 등을 지역 내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원료로 만들어진 자원순환퇴비는 공공재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도시텃밭과 시민 보급용 상자텃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에코마일리지와 연동하여 포인트를 제공하고, 사회공헌으로 퇴비설비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일정 비율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재로 생산된 농자재의 유통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담당하고,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는 이탈리아처럼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거나 이익을 내기 어려운 작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와 행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인으로서 윤리와 품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도시농업 공동체, 도시농업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되도록 중간지원기구가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1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미향·조동범, 2010, “마을만들기에 있어 공유공간으로서 텃밭을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의 가능성과 일상적 경관형성의 효과”,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도시농업시민협의회, 2015, 「런던·파리·베를린 도시농업 현장 방문보고회」.
- 박태호·이인성, 2012,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Vol. 40, No.5.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
- 서울특별시, 2015, 「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
- 송창용·성양경, 2009,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창우, 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워킹페이퍼.
- 채종현·이종한, 200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텃밭보급소, 2011, 「도시농업(귀농총서 27) -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도미자와 렌(富澤 廉), 2015, “도시농업을 통한 생협이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 - 생활클럽동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민간위탁연구소, 2014, 「성북구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 「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 참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2013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 Direction des Espaces Verts et de l'Environnement, 2015, Agriculture urbaine à Paris.
- FAO, 2008, Urban Agri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Lawson, Laura and Luke Drake, 2013, “Community Gardening Organization Survey 2011-2012”, Community Greening Review, Vol. 18,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
- Nomadisch Grün, 2012, Prinzessinnengärten - Transforming Wasteland into an Urban Garden.

Illinois Local and Organic Food and Farm Task Force, 2009, Local Food, Farms & Jobs: Growing the Illinois Economy.

<http://www.growingcommunities.org/> (Growing Communities)

<http://www.vpi.org/revision/> (ReVision Urban Farm)

한겨레, '세계 300대 협동조합기업' 들여다보니, (2012.05.08.)

헤럴드경제, 올해 서울 자투리 땅·옥상 등 524곳...2018년까지 숲·정원 조성, (2015.03.24.)

JTBC, 도심 고온 현상 완화한다더니...방치되는 '옥상 정원', (2015.08.18.)



부록

도시농업분야 협동조합 현황(2015년 6월 기준)

연번	조합명	지역	조합원	주요사업
1	협동조합 소셜다이닝밥상	강동구	6	건강한 음식문화를 창출하는 교육서비스, 텃밭 활동
2	강동도시아양봉농업 협동조합	강동구	5	양봉 등 물품의 공동구매 판매
3	아성 협동조합	강남구	29	귀농 귀촌 영농사업
4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 수출 마케팅협동조합	서초구	22	친환경농식품, 친환경농자재 공동판 매 및 공동구매, 신제품R&D개발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사업
5	누리나눔 협동조합	서초구	85	우량 한돈, 종돈, 모돈 구매 및 공급, 한돈사육 생산 공급 및 판로개척, 한돈 공동구매 및 소비
6	서초하늘땅물벗 협동조합	서초구	5	농산물 판매사업, 생산공동체 연대 및 자매결연운동, 환경운동
7	메가팜 협동조합	서초구	7	축산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사업 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8	협동조합 아름다운사람들	영등포구	5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운송, 창고사업 등
9	생명살리기 안심먹거리 협동조합	금천구	10	농산물 도매및 소매업
10	지구촌조은세상 협동조합	서대문구	5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 수출입업
11	미쁨-COOP협동조합	은평구	8	친환경 식품의 소매, 유통, 온라인사업 등
12	도시농업전문가 협동조합	은평구	5	도시농업관련 행사, 영농, 교육서비스, 도소매 사업
13	성북구친환경마을부엌 협동조합	성북구	30	친환경 공공 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 사업, 먹거리 관련 신사업 발굴

14	친환경농업생태 협동조합	강동구	11	농산물 유통사업
15	작은밀알 협동조합	송파구	6	농수축산식품 가공 및 유통
16	돔바 협동조합	송파구	5	농수산축산물 생산, 도소매, 폐지 등 폐자원 수집 재생산 등
17	도시농사꾼 협동조합	송파구	6	도시농업 교육, 옥상 텃밭 등
18	협동조합길벗	강남구	5	황금상항버섯, 씨감자, 눈꽃송이, 망태버섯, 복령버섯 등
19	전국청정수삼생산자 협동조합	강남구	6	수경인삼시설 및 설비 장치 구매 및 판매사업 등
20	해피플러스 협동조합	강남구	10	농축수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21	팜마루상생 협동조합	강남구	5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등
22	구들구들 협동조합	강남구	8	도시은퇴자, 귀농·귀농인들을 위한 생활공동체 생태마을 조성사업
23	한국숲치유 협동조합	서초구	5	산림치유, 원예치유 등 심신치유사업, 산림교육서비스 사업
24	아리랑밴드 협동조합	서초구	5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와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
25	홍환보 협동조합	서초구	6	친환경 및 유기농 장유류, 건강식품, 생활필수품 론칭 및 판매사업
26	서울생약 협동조합	서초구	8	한약재 등 약용식물의 재배·생산· 유통·판매사업 등
27	생생 협동조합	서초구	15	귀향·귀촌·귀농 관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8	굿플러스 협동조합	서초구	8	농축산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상조위 탁 사업
29	다올귀농 협동조합	서초구	8	귀농관련 조사 및 홍보사업, 박람회 등 기타 귀농과 관련한 사업일체
30	고향나들이다문화 협동조합	관악구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가공 사업, 발효식품 유통사업
31	한국농산업생산자 협동조합	관악구	13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32	서울등대 협동조합	관악구	20	친환경 농산물 사업 및 판로개척사업
33	특농파트너 협동조합	관악구	12	황금상항버섯 재배, 판매사업
34	미래창조영 농협동조합	관악구	47	약초 및 유기농 채소재배

35	특농림 협동조합	동작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각종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등
36	두레촌 협동조합	영등포구	6	버섯 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37	팔도한마음 협동조합	영등포구	5	전국 특산품 공동구매 및 판매
38	명월초 협동조합	영등포구	5	명월초 등 식용 약용 식물 재배 및 유통
39	늘푸른 협동조합	영등포구	5	유기농 채소 생산, 공동판매, 유통가공 사업
40	땅콩새싹 협동조합	영등포구	8	땅콩새싹 2차 가공품 생산 및 판매
41	건강한농부 협동조합	금천구	13	도시텃밭 보급사업, 농자재 판매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사업
42	특농드림 협동조합	구로구	10	각종 특수 영농사업(황금상항버섯, 씨감자 등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43	힐링새생활문화 협동조합	강서구	6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업 물류의 도소매업
44	특농 산내들 협동조합	강서구	10	황금상항버섯 재배 및 판매사업
45	특농 해피드림 협동조합	강서구	10	황금상항버섯 재배, 판매사업
46	365베란다텃밭 협동조합	양천구	5	도시농업 텃밭 모델개발 및 보급, 기능성 농산물 및 부자재 생산유통
47	이풀약초협동조합	양천구	9	약초관련 인증, 판매, 교육프로그램 운영
48	합정향토사랑 협동조합	마포구	7	농수산물 도소매업
49	한국 농축산 자재 협동조합	마포구	5	농축산자재 도소매업
50	집밥 협동조합	서대문구	7	텃밭 가꾸기, 집밥 교육 및 강사 양성
51	송아리 협동조합	서대문구	5	농산물 등 공동구매 사업
52	한여루 협동조합	은평구	7	공동구매 사업, 농산물 생산가공 및 도소매 등
53	협동조합 도시의농부들	은평구	20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
54	한국도시농업전문가 협동조합	은평구	24	도시농업사업
55	다모아 협동조합	노원구	5	농산물직거래사업
56	협동조합 지구촌 강강수월래	노원구	8	빗물저장사업, 식물공장, 태양광발전, 이웃소통공간운영 등
57	상록수협동조합	동대문구	6	농수산물 식품 제도가공 유통업, 귀농 귀촌교육 등 교육사업, 주말농장, 도시텃밭, 생태정원, 생태건축사업 등

58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용문시장 협동조합	용산구	9	농수산물 도소매업
59	특농 신용산 협동조합	용산구	10	황금상항버섯 재배 및 판매
60	아루카 협동조합	중구	5	농축수산물 매장 사업
61	특농창대 제3 협동조합	중구	10	황금상항버섯 수출 및 납품
62	한국의료농산물소비자 협동조합	종로구	12	농산물구매 및 판매, 힐링프로그램 운영, 아카데미교육사업 등
63	힐링협동조합	종로구	5	양계·새싹땅콩, 약초, 버섯 재배·가공·판매사업, 귀농사업 등
64	협동조합 사이좋은마을	종로구	41	농산물 유통사업, 문화강좌, 마을공동체 준비 및 지원사업
65	유기농나눔 협동조합	강동구	21	유기농 친환경 식품판매
66	한국삼채생산지 협동조합	강동구	32	도시농업
67	우리소비자 협동조합	강동구	11	농축산물 구매 및 판매
68	특농 나누리 협동조합	송파구	10	황금상항버섯, 씨감자 등 재배 판매
69	한국농상 협동조합	송파구	21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70	한우리 협동조합	송파구	9	농수산물의 직거래
71	한국신선채소 협동조합	송파구	108	농산물 판매
72	우리농산물 협동조합	송파구	5	농산물 공동구입 및 공동판매 등
73	우리끼리 협동조합	강남구	47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동생산·구매
74	가락시장 협동조합	강남구	5	농촌과 도시와의 공동사회 조성 실시간 직거래
75	단체원 협동조합	강남구	10	좋은 먹거리와 우리나라 토종약초를 알리고 보급
76	리치시티 협동조합	강남구	12	도시농업
77	특농 지구촌 제2협동조합	강남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특수 영농관계 사업
78	서울사랑 협동조합	서초구	7	서울시 도시양봉사업 및 폐현수막 재생사업, 간이음식물 판매사업
79	도시텃밭가꾸기 협동조합	서초구	7	농업, 임업 및 어업·도매 및 소매업

80	지평협동조합	관악구	6	향토송이버섯 판매
81	산지협동조합	관악구	5	도시농업 및 농산물 유통사업
82	특농지구촌 제7 협동조합	관악구	10	황금상항버섯 판매
83	케이티엠 협동조합	관악구	25	농수축산물 도소매
84	행복살림 협동조합	관악구	8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사업
85	녹색먹거리 서울 협동조합	관악구	6	친환경 무농약 쌀눈쌀 판매 및 보급
86	특농지구촌 제9 협동조합	동작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각종 버섯류 재배 및 판매
87	특농두레 협동조합	동작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각종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88	노량진수산물시장 협동조합	동작구	11	농수축산물 및 각종 소비재의 생산, 제조, 판매
89	특농엔오에스 협동조합	영등포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각종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등
90	특농서민 협동조합	영등포구	10	각종 버섯류, 작물 재배 및 가공판매, 수출입 관계사업 등
91	특농희망 협동조합	영등포구	10	각종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수출입 관계사업 등
92	특농은진 협동조합	영등포구	10	버섯류 재배 및 가공판매, 씨감자 등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등
93	상록수 협동조합	영등포구	5	농산물 가공, 제조
94	서울도시농부 협동조합	영등포구	8	도시농업사업
95	특농창대 협동조합	구로구	10	황금상항버섯, 씨감자 등 작물재배 및 가공판매
96	한국자연산산야초 협동조합	구로구	5	자연산산야초 생산 및 구매사업,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97	특농한마음 협동조합	구로구	10	특수영농관계사업(황금상항버섯, 씨감자 재배 및 가공판매)
98	특농상생플러스 협동조합	구로구	10	특수영농관계사업(황금상항버섯, 씨감자 재배 및 가공판매)
99	더불어 협동조합	강서구	20	농수축산물판매 매장 지원
100	특농 뽀얏 협동조합	양천구	10	각종 버섯류, 씨감자, 산양산삼 등 약초류 재배 및 가공판매

101	특농 코스모스 협동조합	양천구	10	황금상항버섯 등 각종 버섯류 재배 및 판매
102	양천사랑 협동조합	양천구	6	농수산물 및 생활용품 공동구매 생산 판매
103	협동조합 양천팜	양천구	41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 및 판매
104	우리집식물공장 협동조합	양천구	7	생산작물유통, 키트판매대여사업, 교육 및 콘텐츠판매사업
105	협동조합 두레반	서대문구	5	단체급식사업, 도농직거래사업
106	협동조합 디엠지(DMZ)	은평구	9	토종닭, 유정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공급사업
107	초록세상 협동조합	노원구	5	원예교육사업, 교육용 자재생산 및 키트사업
108	협동조합 초록풀씨	도봉구	7	환경교육,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슬로 푸드 교육, 열린장터 개설 사업
109	길음뉴타운소비자 협동조합	성북구	15	농수축산물 직거래
110	녹색드림 협동조합	동대문구	31	곡물가공과 유통, 도시농업을 통한 바른 먹거리 제공과 도시영농 보급
111	악령시허브그린 협동조합	동대문구	23	한약재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 비료, 사료생산, 판매
112	서울새마을 협동조합	동대문구	14	농수축산물 및 각종 소비재의 생산, 가공 및 도소매 유통
113	특농 소망 협동조합	광진구	10	버섯 재배 및 판매
114	우리농수산물유통 협동조합	광진구	7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과 판매망 구축
115	행복한애벌레성동 협동조합	성동구	15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116	피어라풀꽃 협동조합	용산구	8	도농직거래
117	특농지구촌 제4 협동조합	중구	10	황금상항버섯 재배 및 판매사업
118	다데네 협동조합	중구	6	인삼재배업
119	조은사회 협동조합	중구	8	인삼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
120	북촌인심 협동조합	종로구	14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도농 연결 사업 등
121	씨앗들 협동조합	서대문구	26	도시농업, 도농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도시농업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5년 6월 기준)

연번	조합명	지역	주요사업	구분
1	(유)그린에버	마포구	화훼판매, 그린관리사 식물관리	인증
2	풀빛문화연대	종로구	숲학교 네트워크사업(생태환경교육, 숲해설, 자연체험 등의 서비스제공)	인증
3	시민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라미	성동구	숲 체험프로그램 및 숲 속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증
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언니네텃밭	서초구	로컬푸드, 제철꾸러미사업	인증
5	청밀	송파구	식자재사업, 농산물전처리센터, 유통사업, 쇼핑몰사업	인증
6	(주)떡찌니	강남구	농수산물판매유통, 떡 제조 등	인증
7	(사)로컬푸드운동본부	서초구	농업분야 관련 연구용역, 로컬푸드 캠페인, 세미나 등 개최	인증
8	주식회사 이그린	금천구	식자재 도소매, 농축수산물 도소매, 단체급식 음식업	인증
9	(주)가든프로젝트	송파구	조경건설업, 원예자재 도소매,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인증
10	농업회사법인 강동도시농부 주식회사	강동구	로컬푸드 농부의 시장	지역형
11	주식회사 에코그린팜	송파구	도시농업 쏘일체인지와 팜닥터	지역형
12	농업회사법인 도시농부들(주)	영등포구	도시농업 및 텃밭 보급	지역형
13	(주)우리원예교육안치료센터	노원구	원예치료 및 원예교육(도시농업) 서비스, 재료 제공	지역형
14	(사)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부내 사업단 '하늘땅물벗 나눔터'	영등포구	친환경 농산물 도소매, 제빵 생산 및 판매, 카페운영	지역형
15	(주)꽃과정원그리고길	강남구	화훼관련사업, 도시농업관련사업, 친환경포장사업	지역형
16	산지협동조합	관악구	도시민들에게 텃밭을 통해 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체와 생태순환의 가치를 확산시켜 도농 간, 세대 간 교류에 기여	지역형
17	이풀약초협동조합	양천구	임산물(약초) 재배, 판매	부처형 (산림청)
18	(주)에덴도시녹화	종로구	도시농업	부처형 (환경청)

19	(주)에코그린팜	송파구	마분퇴비 공급, 도시텃밭 활성화	부차형 (환경형)
20	산지협동조합	관악구	도시농업	부차형 (환경형)
21	(주)에코십일	서초구	환경교육, 자원순환형 도시농자재	부차형 (환경형)

도시농업분야 마을기업 현황(2015년 6월 기준)

연번	기업명	지역	주요사업
1	엔젤영농조합법인	관악구	자활영농을 통한 노숙인자활, 자립기반 조성
2	주식회사 연남올레마을기업	마포구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 운영
3	꽃피는 호박골(어울림터)	서대문구	도시텃밭 생태공원 및 커뮤니티 공원시설 조성
4	도농원	서대문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직거래 촉진사업
5	문턱없는 세상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	문턱없는 세상
6	녹색드림협동조합	동대문구	친환경생태사업 및 건강나눔사업, 지렁이 분변 토 상자 보급
7	건강한농부협동조합	금천구	도시농업으로 꽃피우는 마을공동체
8	약령시허브그린협동조합	동대문구	한약재부산물 재활용 친환경 상품화사업(토비 활용)

서울연 2015-PR-05

서울시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